기본연구
2021-31

이슈페이퍼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정책

김승보, 유한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1-31

이슈페이퍼 2021-07

이슈페이퍼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정책

김승보, 유한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정책

김승보[1]·유한구[2]

〈목 차〉

I.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전망과 대응 ····· 2
II. 코로나19 공존 시기와 인적자원개발 ····· 6
Ⅲ. 조사 및 분석 결과 ····· 11
Ⅳ. 정책 제언 ····· 24
Ⅴ. 기대효과 ····· 33
참고문헌 ····· 35
[부록] ····· 37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만 없는 부정적 요인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으나, 2년 가까운 전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되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발전 전망을 도모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living with COVID19)' 시기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함.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대응 전략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의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봄.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비대면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반발감 완화라는 성과도 동시에 확인됨. 따라서 코로나19와의 공존 시기에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으로는 제도 변화,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하드웨어적 사안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교수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보다 더 주요한 문제로 제기됨.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sbkim@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ryuhangu@krive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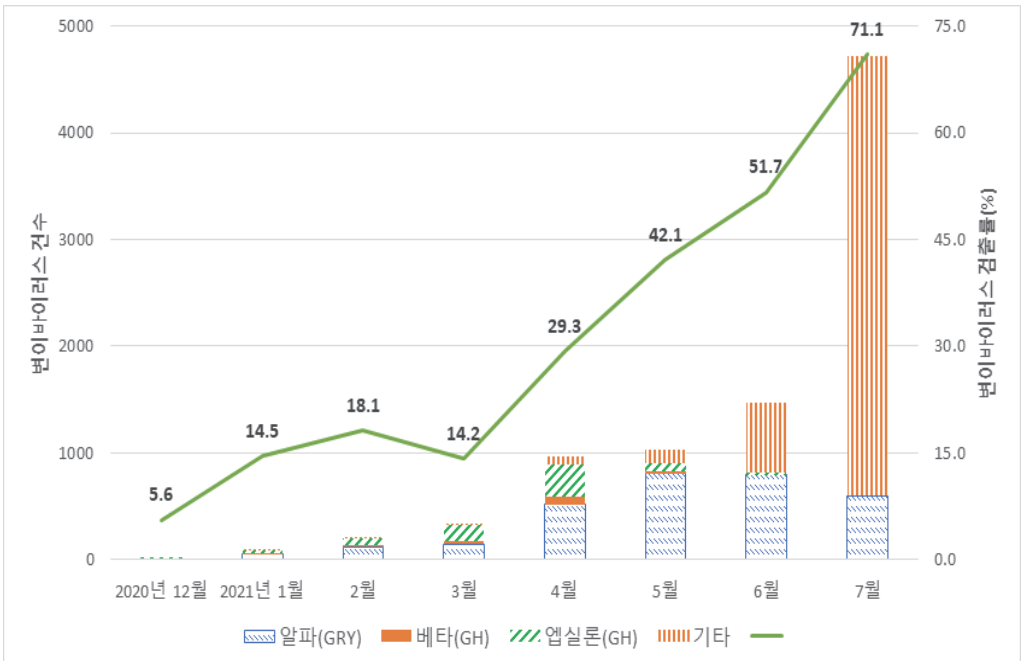
I.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전망과 대응

일상으로의 회복을 희망하며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역대 최고의 신규 확진자(12월 15일 현재)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접하여,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복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보급되었고 접종률도 80%를 넘어 이제 전염병 사태의 종식까지도 기대하였지만, 이 같은 희망은 엄청난 전염력과 치명타를 가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 앞에서 다시 무력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와의 공존(living with COVID19)'[3]을 선언하고 시행에 들어갔던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도 다시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로 이어지는 바이러스의 맹위에 사상 최대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간의 전염병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사회 각 부문은 전시상태와 같은 규제와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속박이나 관계 및 소통의 단절은 차치하고, 당장 생계를 꾸려 가야 하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장애인과 노년층, 그리고 세심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을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었다.

3) 흔히 매스컴에서 접하는 '위드(with) 코로나'라는 단어는 개념 출처가 다소 모호한 언론 용어(journalistic term)로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정책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추이



출처: 김일환 외(2021). 연구진 재구성

그런데 이 전염병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알파, 베타, 엡실론 등 크고 작은 위력의 수많은 바이러스가 인간사회를 휘감아, 언제든지 다시 휘저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변이종들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살아남은 새로운 변이의 일부는 치명적인 전파력을 지니게 된다(CDC[4]). 2021년 12월 현재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새로운 단계(phase)로의 이동'으로 표현하고 있다(Skegg, D. et al., 2021). 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단체를 포괄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인 ISC[5]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양이와 개 등 많은 동물에 편재해 있는 반면, 변이에 따른 백신의 적용 범위는 한정적이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한 근절은 근원적으로 불가능

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https://www.cdc.gov).
5)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성 여부는 ① 백신 보급에 대한 접근법: 국제적 접근 vs. 국수적 접근, ②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정도, ③ 백신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회피 태도, ④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순진한 가정이나 믿음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 입안자와 시민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양극단의 시나리오도, 그리고 중간 단계의 시나리오도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의 공존 시기가 언제 닥쳐올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기관마다 다른 예측[6]을 내어놓고 있지만, ISC의 논의에 따른다면 각각의 예측에 대한 근거를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전염병과 관련한 위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상황에서, ① 현재 백신을 확보한 선진국들의 국수적 접근 태도로 말미암은 저개발 국가의 백신 부족 상황[7], ② [그림 1]과 같은 새로운 변이종의 발생 지속, ③ 백신에 대한 거부감 존재[8], ④ 영국 등 각국의 성급한 코로나 공존 선언과 '후퇴[9]' 결정 등 결코 낙관할 수만 없는 부정적 요인이나 불확실한 상황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ISC, 2021).

그러나 코로나19의 위력과 생존력이 아무리 크고 터널의 길이가 길더라도, 그리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귀가 여러 차례 반복 시행되더라도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전염균의 위력을 확인하고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회적 상처가 더욱더 깊어졌던 초기 대응 상황을 반추하면 자명한 일이다. 발전적 미래 차원에서도 이들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고려하고 이에 대비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2년 가까운 전염병과의 전쟁 속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여러 취약점을 되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발전 전망을 도모하는 일은 코로나19와의 공존 시기를 대비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와의 공존(living with COVID19)'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한 강제적인 거리두기 규정을 철폐한 정책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마스크도 실내외 관계없이 모든 공간에서 착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6) 예컨대, 백신 개발 기업인 화이자의 CEO인 Albert Bourla, 미국 전 FDA 국장인 Scott Gottlieb 등은 내년이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어 놓고 있으며, 영국의 전문가 그룹(SPI-M)이 내놓은 바처럼 코로나19 전염병에 최소 5년은 시달릴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시되고 있다(중앙일보, 2021. 12. 5.).

7) 남아공에서 발생한 오미크론이 다시 백신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등지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음.

8)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도 접종률이 인구의 61%에 불과하며, 영국 69%, 프랑스 72%, 이탈리아 74% 등 선진국의 백신 거부자 비율이 적지 않음.

9) 2021년 7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가장 먼저 선언한 영국은 12월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백신 패스(코로나19 음성 증명서) 확인 의무제도를 도입함(한국일보, 2021. 12. 9.).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완전 종식이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하에, 전염병과 공존하는 방식의 일상을 전략적으로 채택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연말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맹위와 위협 앞에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다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등 후퇴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길목에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특성상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코로나19 공존 시기'를 거치게 될 것은 명확해 보인다. 앞서 논의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전염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거에 사라지는 기적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부터 포스트 코로나19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거치게 될 '코로나19 공존'의 시기는 위기와 기회, 어두움과 밝음의 양면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전염병 사태의 완전 종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적되어 온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지속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19와의 새로운 관계가 추구되어야 하는 기간이다. 또한 생계 문제와 디지털 지체(lagging behind) 등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여러 어두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코로나19를 계기로 성큼 다가온 디지털 대전환의 변화를 전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놓여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코로나19 공존의 시기는 언제든지 이전 코로나19 시기로 후퇴할 수 있음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야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II. 코로나19 공존 시기와 인적자원개발

코로나19 사태는 보건과 의료체계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친 사안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 역시 심각한 상처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각 나라의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대부분 수업을 멈췄고, 직업훈련기관이나 평생교육 참가자들 역시 이 기간 동안 학습 기회가 박탈되거나 축소되었다. 많은 기업이 원격근무로 전환하면서 직장학습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경우 학습 참여는 후순위로 밀렸다. '코로나 취업 한파'라는 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극히 저조하였고(교육부, 2021. 12. 27.), 기업 내 학습이나 교육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다(김승보 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적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별 산업이나 전문 영역과 결합한 직업훈련, 그리고 성인 및 평생교육 등 분야에서 숙련 형성과 노동시장 지원, 숙련 인력의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표적인 인력 양성 기능을 가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의 네 가지 부문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각 부문 간의 비교·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나타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충격과 변화 양상은 세부 분야(부문)별로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인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부문별 세부 이슈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 부문에서의 이슈와 쟁점으로서는 무엇보다 원격수업의 전면 실시로 인한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접속망 지원 문제와 가정에서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수업 통합 콜센터 필요성, 그리고 대안적 측면에서 학습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시에 서버 확충을 가능케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도 제기된다(장혜승, 2020; 김승보 외, 2021).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 지원 문제나 가정 배경·지역 여건에 따른 돌봄과 학습의 격차 문제도 논의되며, 특정 방식 하나로만 진행되고 지루한 온라인 학습 형태로 인한 학습 효율성 하락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백병부, 2020). 계보경 외(2020)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약 79%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인식하고 있음을 제기하며,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지원 인력 배치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 많은

교사들이 원격수업에 있어서 학생 출결 확인과 평가 및 수업 참여 독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의 대안으로서 AI를 적용한 학습관리시스템 및 학사관리 제도 보완책 마련, 학생의 개별적 학업 수준과 흥미 및 관심을 반영한 교육과정 이수제도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계보경 외, 2020; 김승보 외, 2021).

둘째, 대학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원격수업의 전면 실시 경험에 따른 각종 사안들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질 확보 어려움이 확인되었고,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의 어려움도 제기되었다. 즉, 원격수업에서 나타나는 소통 부족과 집중 저하, 과제수행의 어려움, 그리고 시스템 불안정 등이 주요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교육부, 2020; 정부영, 2020). 교육부(2020)의 설문조사 결과는 원격수업에 대한 대학과 교수의 준비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과 교수들의 수업 준비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영(2020)은 일반대학생과 다른 전문대학생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문대학생을 위한 맞춤식 콘텐츠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에서 보다 다양한 원격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제도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대안으로서는 한시적으로 적용한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지속가능한 장기적 제도로 정비하는 일과 교수·학습자료 제공 및 교수자의 ICT 기술 향상, 저작권 제도 개선 등 방안이 논의되었다.

셋째, 직업훈련 부문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시기 고용 관련 지원 정책이 미치지 않는 고용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나 특수고용,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사회적 배제 여지가 높지만, 이에 대한 일자리 확보 등 사회보장 체계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다(정흥준, 2020). 또한 비대면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참여자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반 마련이 부족한 것과 업무 증가 및 인력 부족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실습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특성상 원격교육은 도구와 기계의 사용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수요가 급감한 관광, 레저 등 분야의 기업 견습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 2020; 외교부, 2020). 김주섭(2020)은 현행 원격훈련지원사업이 훈련 품질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의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고품질의 이러닝 훈련 콘텐츠 개발 유인이 저하된다는 점과 현재의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이 낮은 수익률과 마진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이 체계적인 대응 전략보다는 단지 비대면 훈련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7년)에 포함된 스마트 직업훈련

생태계 구축의 시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 부문에서 주요 논의 중에는 시스템과 관련한 사안이 있다.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의 『2020 평생교육백서』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평생교육은 체계적 시스템을 통한 대응이 아니라 현장의 자구책에 급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생교육 디지털 환경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홍섭(2020) 역시 평생교육이 기본권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코로나19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평생교육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의 웹을 통한 콘텐츠 접근 역량 부족 문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평생교육 참여의 불평등 심화 문제, 학습동아리 등의 소규모 모임의 전면 중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이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법적 기반이 없는 기관이나 강사들이 가지는 어려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금홍섭, 202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2020, 최선주·윤미희, 2021). 정책 방안으로는 가족 단위의 평생교육 확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성인교육자들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인터넷과 데이터 요금제를 지불할 여유가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접근의 형평성 제고 등이 논의되고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금홍섭, 2020; 최선주·윤미희 2021).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인력 양성 및 숙련 형성 부문에 대한 코로나19 시기의 각 부문별 이슈는 대체로 ① 원격 학습, 근무 등에 따른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문제, ②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 걸맞은 법과 제도의 문제, ③ 원격 학습,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문제, ④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 역량, ⑤ 디지털,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격차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각종 이슈와 쟁점을 부문과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코로나19를 통해 나타난 인적자원개발 분야 영역별 이슈와 쟁점

부문	영역	요소(주요 이슈)
초·중 등교육	인프라	인터넷 접속망 지원, 원격수업 통합 콜센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법·제도	AI 적용 학습관리시스템 및 학사관리 제도, 교육과정 이수제도 개선
	콘텐츠	온라인 학습에 따른 학습 효율성 제고 콘텐츠, 비대면 콘텐츠 확보
	교수 역량	학생 출결 확인·평가의 어려움, 교사 역량 강화 및 지원 인력 배치
	격차 문제	취약계층 디지털 기기 지원, 가정 배경 등에 따른 돌봄과 학습 격차
대학 교육	인프라	시스템 불안정 문제, 빅데이터 기반 학습 플랫폼 구축 등
	법·제도	다양한 원격수업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과목 특성(실험, 실습 등)에 따른 수업 운영 어려움, 전문대학생을 위한 맞춤식 콘텐츠 개발
	교수 역량	원격수업 준비 교수자의 ICT 기술 향상, 소통 부족과 집중 저하, 과제수행의 어려움
	격차 문제	취약계층 대학생의 원격 기기, 지방 대학생 취업 환경 개선
직업 훈련	인프라	비대면 직업교육훈련 제공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반, 스마트 직업훈련 생태계, 온오프라인 연계형 학습과정 학사관리 시스템
	법·제도	최소 기준 방식의 근로자 훈련·재정 지원, 고품질 이러닝 훈련 콘텐츠 개발 유인 강화, 에듀테크 산업의 낮은 수익률과 마진율 개선
	콘텐츠	실습 위주의 직업교육훈련 특성상 이러닝·원격훈련 콘텐츠 확대
	교수 역량	대면실습 지원 문제, 참여자 통제의 어려움, DB 관리의 필요성
	격차 문제	고용 안전망, 고용 사각지대 점검, 일자리 확보 등 사회보장 체계, 관광·레저 등 분야의 기업 견습 기회 제공 감소
평생 교육	인프라	체계적인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과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법·제도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 지자체 간 양극화 등 거버넌스
	콘텐츠	학습동아리 등 중단에 따른 콘텐츠, 디지털 전환 성인교육 콘텐츠, 가족 단위 평생교육 확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
	교수 역량	온라인 평생교육에 따른 교수 역량, 강사의 법적 기반
	격차 문제	고령층의 콘텐츠 접근 역량 부족, 일자리 상실 노동자들의 평생교육 참여의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코로나19 시기의 부문별 공통 이슈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전망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공통 이슈 영역에 대한 부문별 평가를 기초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세부적 정책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코로나19 공존 시기는 코로나19로부터 포스트 코로나19 시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부문별 공통 이슈 영역 평가에서 코로나19 공존 시기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영역은 코로나19 시기의 대응 정도와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대응 필요성 정도 및 함수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시기의 대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③)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①), 즉 ③ - ①의 조합에 속한 이슈 영역은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정책 대응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반면, 코로나19 시기의 대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②)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④), 즉 ② - ④ 조합에 속한 이슈 영역은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정책 대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의 대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②)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서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은(①) 이슈 영역과 코로나19 시기의 대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③)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서의 중요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④) 이슈 영역, 즉 ② - ① 조합 및 ③ - ④ 조합에 속한 이슈 영역은 코로나19 시기에서의 우선순위는 떨어진다. 그러나 이들 ② - ① 조합 및 ③ - ④ 조합에 속한 이슈 영역 간의 경중은 추가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코로나19를 통해 나타난 인적자원개발 분야 영역별 이슈와 쟁점

구분	코로나19 시기의 대응 정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중요성 정도
비중 높음.	②	①
비중 낮음.	③	④

Ⅲ. 조사 및 분석 결과

1. 자료 설명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처와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각 부문에 걸친 전문성을 지닌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0] 설문조사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에 모두 315명의 대학교수가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교수가 69.2%, 여자 교수가 30.8% 응답하였으며, 전문대학 교수가 27.0%, 4년제 대학교수가 64.1%, 대학원 교수가 8.9%를 차지하였고, 수도권 지역 대학교수가 46.7%, 비수도권 지역 대학교수가 53.3%를 차지하였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이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11]

2. 코로나19 시기에 나타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영향 정도와 취약성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우리 사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혹은 더 큰 강도로 인적자원개발 분야도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코로나19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미친 영향은 부문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초·중등교육 부문, 대학교육 부문, 직업훈련 부문, 그리고 평생교육 부문의 영향이 다르고, 같은 부문에서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영역인 디지털 인프라 영역, 제도와 시스템 영역, 디지털 콘텐츠 영역 및 디지털 교수 역량 영역이 다르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영역도 각 부문이 안고 있는 주요 과업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끼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그리고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문항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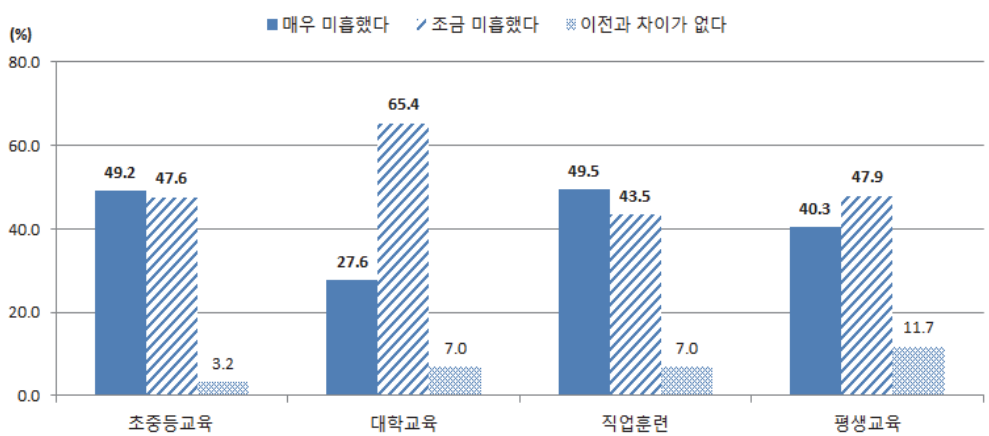
먼저, 코로나19의 부문별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부문의 교육과 훈련이 '이전과 차이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초·중등교육이 3.2%,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은 7.0%, 평생교육은 11.7%에 불과하였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의 전 부문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

10) 본 조사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특정 부문이 아닌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대한 비교 평가라는 점에서 현장 단위에서의 전문가를 제외하였음.
11) 응답자 특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부록] 참조

해 이전에 비해 각 부문의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초·중등교육(49.2%)과 직업훈련(49.5%)은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주고 있어 이전에 비해 교육과 훈련이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각 부문에 전반적으로 88.3~97%에 이르는 극심한 영향을 끼쳤고 부정적인 충격을 주었지만, 특히 초·중등교육에서의 충격파가 가장 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직업훈련 부문으로서 근소하게 초·중등교육 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 부문은 일반 성인이나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대상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더 깊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6] 코로나19가 미친 인적자원개발의 부문별 영향 정도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역별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 나타난 수치는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비중을 뜻한다.

첫째, 각 부문별로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부문 공통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비대면 인프라가 오르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각 영역의 양상은 부문별 특성과 지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취약한 영역으로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가 39.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디지털 교수 역량의 부족(26.2%),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배

려 부족(16.4%), 디지털 콘텐츠의 부족(13.8%), 학생 평가 제도와 방식(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육 부문에서도 1순위로는 비대면 학습 플랫폼 등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39.9%)가 가장 높았지만, 그다음 순위로는 디지털 교수 역량의 부족(21.5%), 학사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19.1%), 디지털 콘텐츠의 부족(13.3%), 지방 대학에 대한 취업 지원 부족(6.1%)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부문에서도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의 부족(52.2%) 외에 원격훈련을 위한 콘텐츠 부족(24.9%), 근로자 직업훈련 및 재정지원 방식의 한계(13.0%), 원격훈련에 대한 교수 역량 부족(7.8%),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2.0%)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온라인 평생교육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42.4%)에 이어, 공급자 위주의 평생교육 체계(24.1%),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22.7%), 원격교육에 대한 교수 역량 부족(5.4%),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 대응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각 영역의 비중을 중심으로 각 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대면 인프라 영역이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문은 직업훈련 부문으로서, 가장 높은 52.2%를 보였다. 그리고 평생교육 부문이 42.4%로 그다음으로 지적되었다. 언론 매스컴에 가장 큰 비중으로 보도되었던 초·중등교육(39.3%)이나 대학교육(39.9%)은 이들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낮았다.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는 평생교육 부문이 24.1%로 가장 높은 지적을 받았고, 다음으로 대학교육 부문이 19.1%, 직업훈련 부문이 13.0%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은 4.3%로서 가장 응답 비중이 낮았으며, 이는 초·중등교육 부문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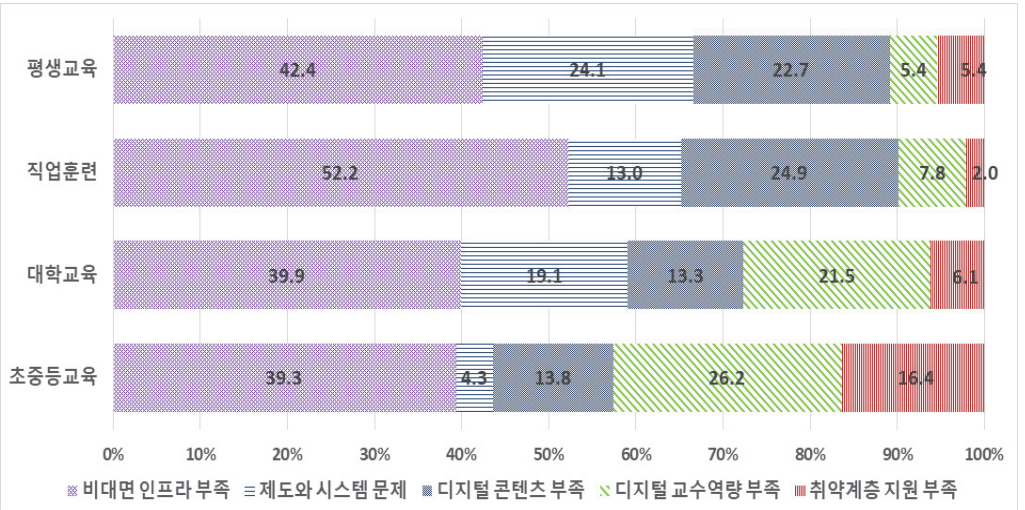
디지털 콘텐츠 부족 문제는 직업훈련 부문(24.9%)과 평생교육 부문(22.7%)에서 가장 높은 지적을 받았고, 초·중등교육 부문(13.8%)과 대학교육 부문(13.3%)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을 받았다.

한편, 디지털 교수 역량 부족 문제는 초·중등교육 부문이 26.2%로 가장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육 부문이 21.5%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부문(7.8%)과 평생교육 부문(5.4%)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부족 문제는 초·중등교육 부문이 1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교육 부문(6.1%)과 평생교육 부문(5.4%)이 뒤를 이었으며, 직업훈련 부문(2.0%)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림 7] 코로나19 시기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운영 평가

(단위: %)



셋째,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코로나19 시기의 인적자원개발 부문 전체를 살펴보았다.

비대면 인프라 영역의 부족과 디지털 콘텐츠 영역의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된 부문은 직업훈련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부문 참가자의 특성이 대체로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지원 부족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의 비대면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위한 STEP(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12] 사업이 아직 직업훈련 부문 전체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직업훈련 부문에서의 비대면 인프라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평생교육 부문에도 유사한 지적이 가능하다. 즉,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비대면 인프라 영역의 부족과 디지털 콘텐츠 영역의 부족 문제가 매우 높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평생교육 부문은 직업훈련 부문과 달리 제도와 시스템 개선 문제가 디지털 콘텐츠 확보보다 순위가 높은 두 번째 순서로 지적되고 있어,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문제가 당면한 과제로 높은 지적을 받고 있다.

디지털 교수 역량 영역이 가장 높게 지적된 부문은 초·중등교육 부문과 대학교육 부문이었다.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부문은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부문과 다르게 의무적이든 혹은 자발적

12)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으로서, 고용부가 개발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학습 플랫폼임.

이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문이면서 매우 촘촘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박한 대응을 요하는 사안에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 투여가 요구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취약계층 지원 부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99%가 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학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문 내 취약계층 지원 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 부문에도 취약계층 지원 문제가 일정 정도 비중을 나타내지만, 초·중등교육 부문의 비중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코로나19 시기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코로나19 대응 만족도와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필요성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4대 부문 5개 영역은 약간의 경중 차이는 있으나 거의 예외 없이 코로나19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부터의 충격 정도와는 별도로, 각각의 부문과 영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정도 평가와 향후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는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선 4대 부문 6개[13] 영역별로 각 항목에 대한 코로나19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만족스러웠는지와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대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 공존 시기는 앞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복귀하기 전의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 동안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곧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정책 역량의 집중 필요성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의 대응 만족도와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대응 필요성을 통해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Borich의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X축에 바람직한 수준을 두고, Y축에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즉 결핍된 정도를 두어, X축과 Y축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우선 요구 순위를 파악한다(Borich, 1980; 조대연, 2009. 재인용). 이 분석에 의하면, 1사분면에 위치한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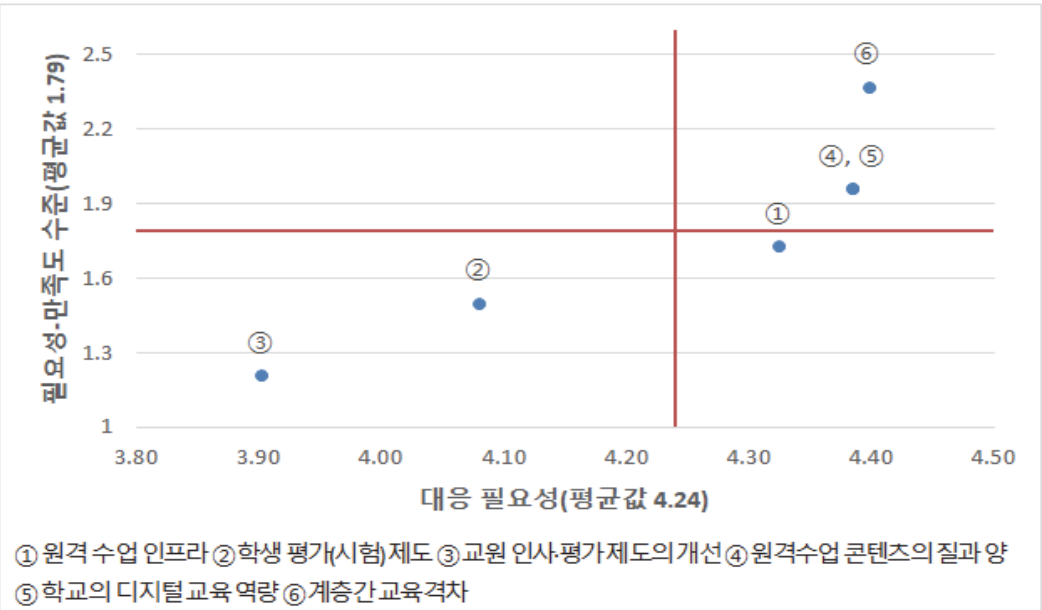
13) 5개 영역(디지털 인프라 영역, 제도와 시스템 영역, 디지털 콘텐츠 영역, 디지털 교수 역량 영역,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제도와 시스템 영역'에서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여 6개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영역의 부문별 맥락에 적합한 방식으로 용어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취약계층 지원 영역이라도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로, 직업훈련 부문에서는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달리 용어를 선택하였음.

판단한다.[14]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모든 문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만족도가 2.7점 아래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대응 필요성은 3.8 이상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부록] 참조).

The Locus for Focus 모델 평가를 통해 1사분면에 속하는 응답인 '계층 간 교육격차',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학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원격수업의 인프라의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대응을 비교적 빨리 수행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계층 간의 교육 자원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공존 시기에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그림 8] 코로나19 공존 시기 대응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초·중등교육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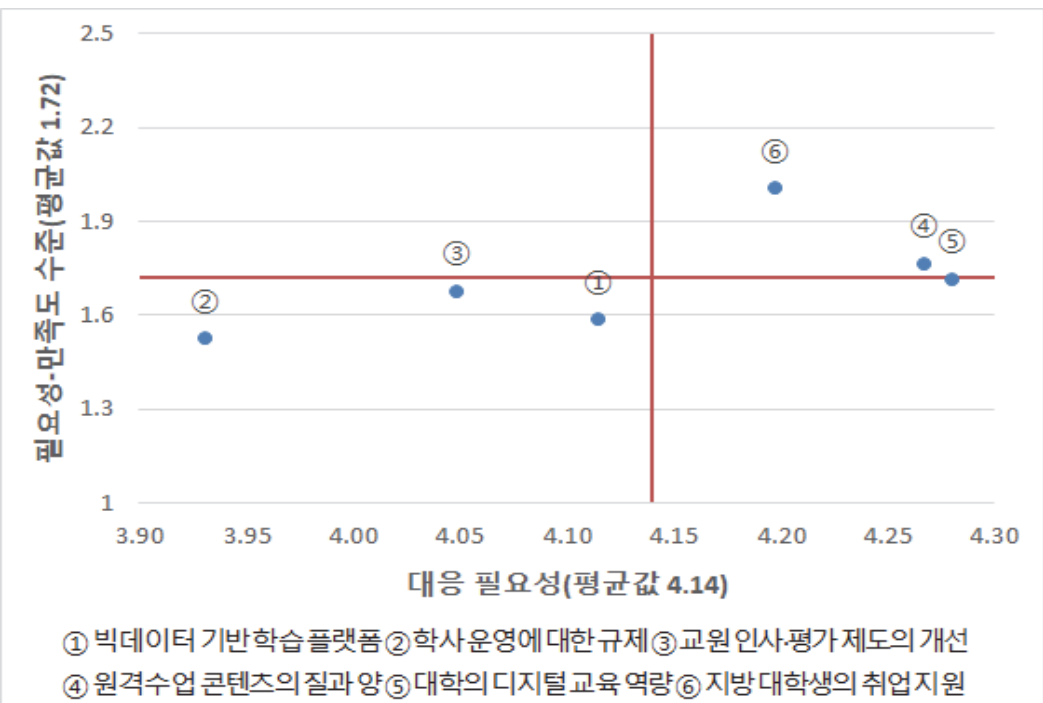
14) 이는 The Locus for Focus 모델 방식으로서, {Σ(필요수준-현재수준)×(필요수준 평균)}/N으로 표현되는 Borich 요구도 분석의 응용 모델로, 좌표평면상에 필요수준의 평균으로 가로축을, '필요수준-현재수준'의 평균을 세로축에 설정함. 각각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4사분면을 만들어, 필요수준과 양 수준의 차이에 따라 1사분면(HH), 2사분(LH), 3사분면(LL), 4사분면(HL)으로 결과치를 분류하여 분석함(Borich, 1980; 조대연, 2009. 재인용).

대학교육 부문에서도 모든 문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만족도가 2.6점 아래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대응 필요성은 3.9 이상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부록] 참조).

The Locus for Focus 모델 평가를 통해 1사분면에 속하는 응답인 '지방대학생의 취업지원'과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취업난은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준비기 미흡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비대면 교육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콘텐츠의 질과 양,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부족했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가 취업에 어려움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코로나19 공존 시기에는 우선적으로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코로나19 공존 시기 대응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대학교육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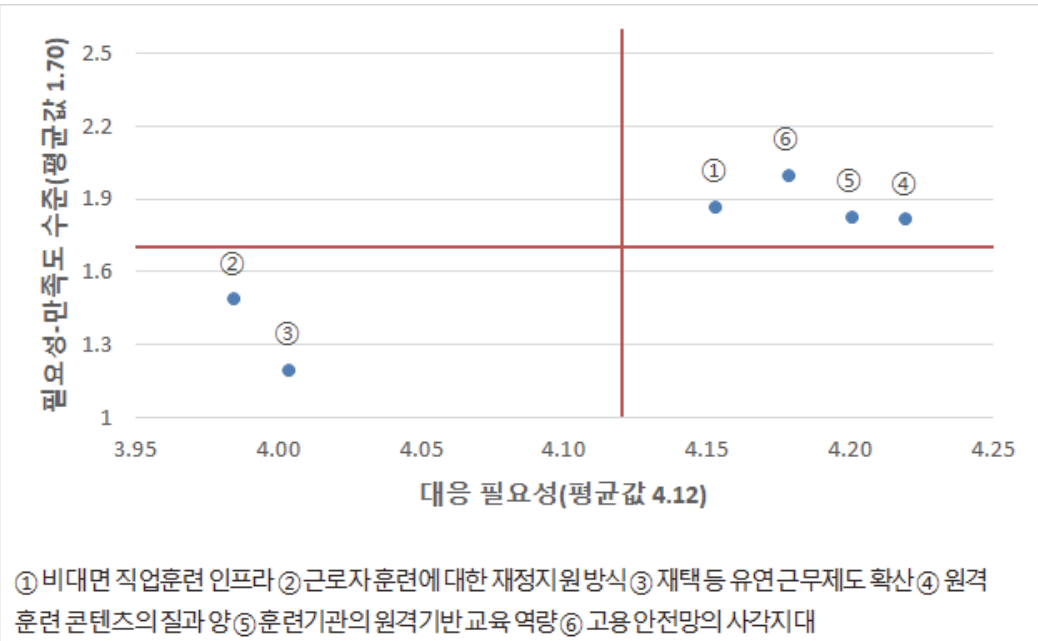


직업훈련 부문에서도 모든 문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만족도가 2.9점 아래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대응 필요성은 3.9 이상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부록] 참조).

The Locus for Focus 모델 평가를 통해 1사분면에 속하는 응답인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 '훈련기관의 원격훈련 역량', '디지털 콘텐츠의 질과 양'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 부문이나 대학교육 부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이에 대한 지원이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실습을 위주로 하는 직업훈련은 인프라의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의 구성, 원격훈련 역량 등 전반적인 원격훈련 기반의 마련에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코로나19 공존 시기에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반의 원격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코로나19 공존 시기 대응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직업훈련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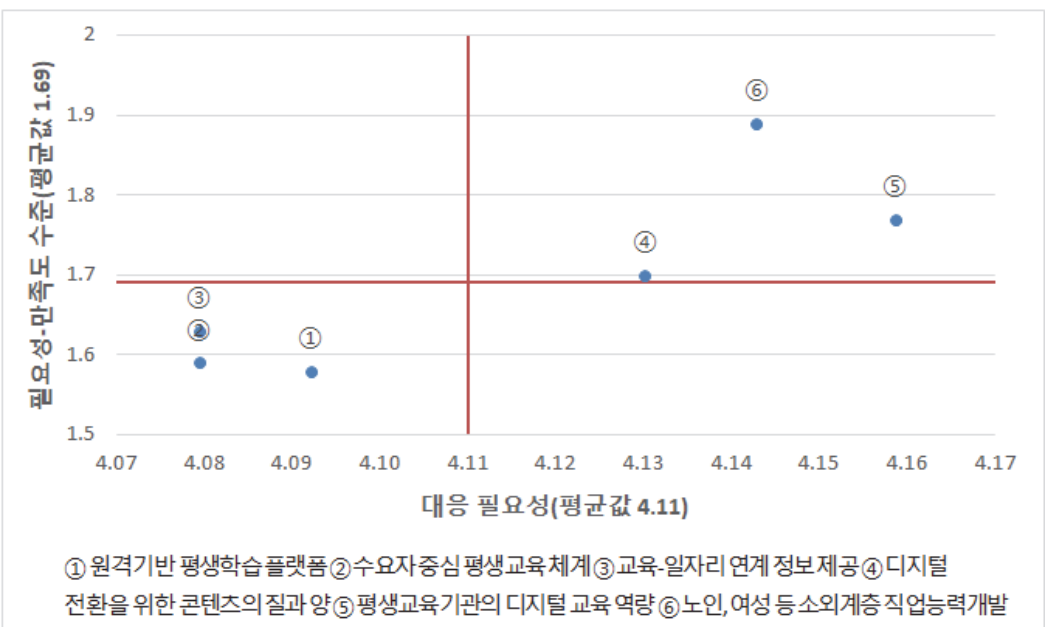
①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 ② 근로자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③ 재택 등 유연근무제도 확산 ④ 원격훈련 콘텐츠의 질과 양 ⑤ 훈련기관의 원격기반 교육 역량 ⑥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모든 문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만족도가 2.6점 아래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대응 필요성은 4.1 이상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부록] 참조).

The Locus for Focus 모델 평가를 통해 1사분면에 속하는 응답인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 직업능력개발'과 '평생교육기관의 디지털 교육 역량',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콘텐츠의 질과 양'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정규교육에 비해 평생교육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이로 인해 평생교육기관의 원격교육에 대한 준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은 노인, 여성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더 취약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 공존 시기에는 노인, 여성 등에 대한 디지털 학습 역량을 제고하고, 평생교육기관의 디지털 교육 역량의 확충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림 11] 코로나19 공존 시기 대응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평생교육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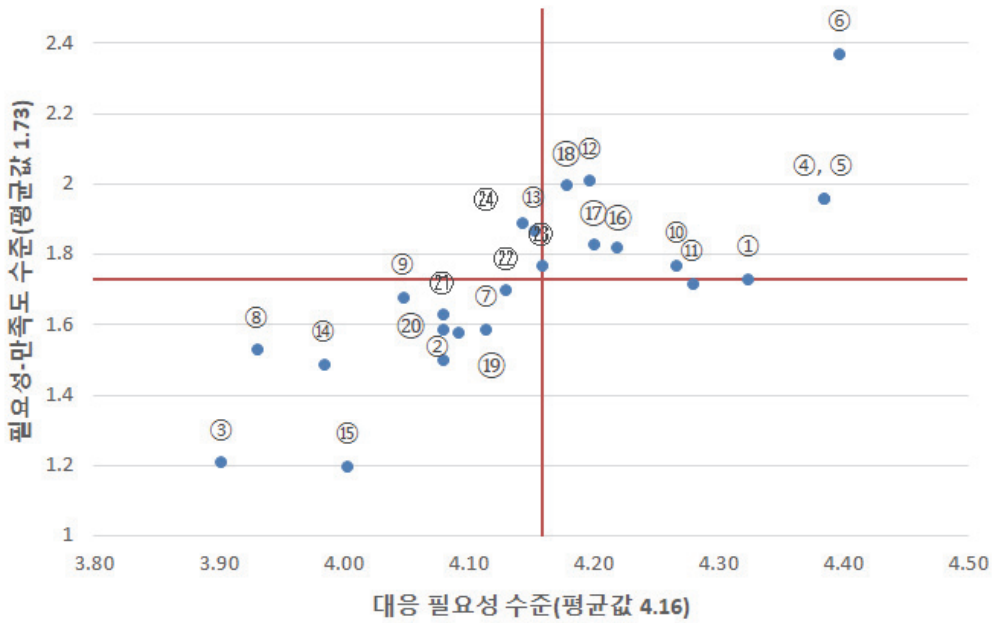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 공존 시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항목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네 부문을 통해 살펴보면, 전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디지털 콘텐츠의 질과 양, 디지털 교육 역량 등 소프트웨어적 사안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는 응답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는데, 초·중등교육에서는 계층 간 교육격차의 해소, 대학교육에서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 지원, 직업훈련에서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 평생교육에서는 소외계층 직업능력개발 등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코로나19와의 공존'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정책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등교육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 역량의 확보, 직업훈련에서 원격훈련 콘텐츠와 훈련 역량의 확보, 평생교육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콘텐츠의 질과 양, 디지털 교육 역량의 확보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직업훈련 부문에서는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점은 다른 부문과 차별적인 점이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The Locus for Focus 모델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하면, 1사분면에 속한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원격수업 인프라, 계층 간 교육격차,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학교의 디지털 교육역량이 우선순위가 높았고, 대학교육에서는 지방대학생의 취업지원과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이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직업훈련에서는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 훈련기관의 원격훈련 역량, 디지털 콘텐츠의 질과 양이 우선순위가 높았다. 평생교육에서는 평생교육 기관의 디지털 교육 역량만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12] 코로나19 공존 시기 대응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부문 종합)



-초중등: ① 원격수업 인프라 ② 학생 평가(시험) 제도 ③ 교원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 ④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⑤ 학교의 디지털 교육 역량 ⑥ 계층간 교육격차

-대학: ⑦ 빅데이터 기반 학습 플랫폼 ⑧ 학사 운영에 대한 규제 ⑨ 교원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 ⑩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⑪ 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⑫ 지방 대학생의 취업 지원

-직업훈련: ⑬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 ⑭ 근로자 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 ⑮ 재택 등 유연 근무제도 확산 ⑯ 원격 훈련 콘텐츠의 질과 양 ⑰ 훈련기관의 원격기반 교육 역량 ⑱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

-평생교육: ⑲ 원격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⑳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체계 ㉑ 교육-일자리 연계 정보제공 ㉒ 디지털전환을 위한 콘텐츠의 질과 양 ㉓ 평생교육기관의 디지털 교육 역량 ㉔ 노인, 여성등 소외계층 직업능력개발

4. 코로나19와의 공존 시기 핵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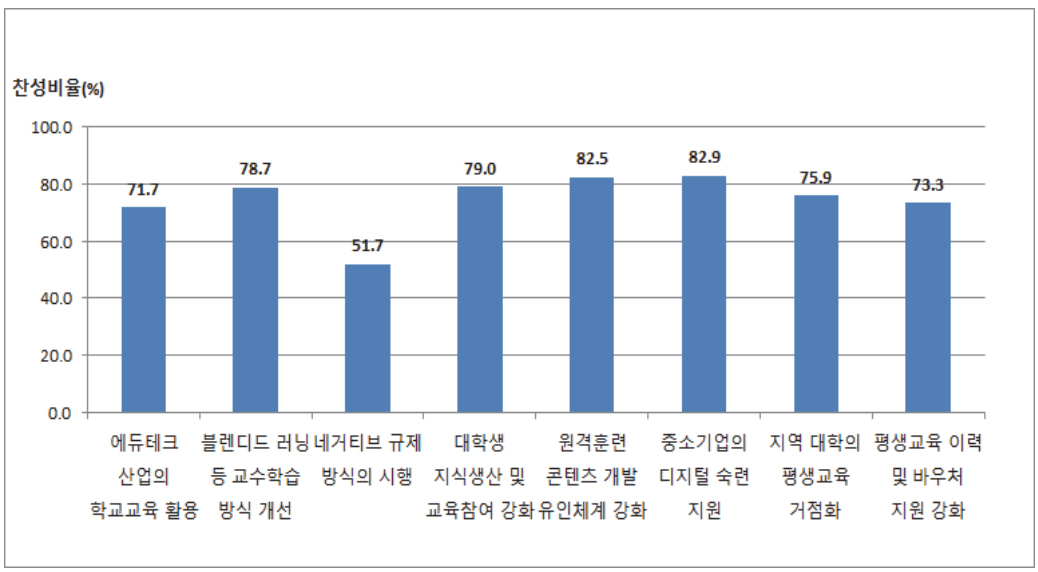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핵심적 정책 수행 필요성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4개 부문에 대해 각각 2개 문항을 설정하고, 그 필요성을 5점 척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때 각 문항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과 찬성하는 비율을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블렌디드 러닝 등 교수·학습 방식 개선에 대해 78.7%가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에듀테크 산업의 학교교육 활용도 71.7%가 찬성하였다. 대학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생 지식 생산 및 교육 참여 강화에 대해 79.0%가 찬성하였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시행에

대해서는 51.7%가 찬성하였다. 직업훈련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숙련 지원에 대해 82.9%가 찬성하였고,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 유인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82.5%가 찬성하였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거점화에 대해 75.9%가 찬성했고, 평생교육 이력 및 바우처 지원 강화에 대해 73.9%가 찬성했다.

직업훈련에서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과 중소기업 디지털 숙련 지원, 대학교육에서 대학생의 지식 생산 및 교육 참여, 초·중등교육에서 교수·학습 체제의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13] 코로나19 공존 시기 핵심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과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는 인적자원개발 전 분야에서 심각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초·중등교육에서 충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 가장 미흡한 부문으로는 직업훈련 부문이 근소하게나마 초·중등교육 부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취약성 정도는 비대면 교육훈련 인프라의 부족을 가장 크게 지적하였다.

둘째, 코로나19와의 공존 시기에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으로는 제도 변화,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장기간의 노력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사안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직업훈련 교수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주요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확장되고 있는 점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도입이나 에듀테크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대학교육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시행, 직업훈련 부문에서의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 유인체계 강화 등 부문별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정책 추진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정책 제언

장기간의 전염병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각 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촉발하였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도 구성원 모두가 원격교육과 원격훈련이라는 초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과 훈련에서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부문별 영향 정도에서 초·중등, 대학, 직업훈련, 평생교육 4개 부문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비대면 교육훈련 인프라의 부족 문제였다. 그리고 전염병 사태가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반발감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본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되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의 에듀테크 산업 연계성 강화, 평생교육에서의 바우처 지원 강화, 대학에서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시행 등 해당 부문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사에 응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의 시기에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로 장기간의 노력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제도 변화,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 사안이 아닌, 그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훈련 종사자나 교수자의 디지털 마인드와 역량을 형성하며, 학습자, 훈련자들의 자기주도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에 우선 집중하는 것을 꼽았다.

물론 코로나19와의 공존 시기에도 중장기적 패러다임 차원에서 학교와 대학, 그리고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기관 단위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머뭇거릴 문제는 아니다. 초·중등 단위의 학교는 물론, 투자 여력이 부족한 대학이나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중장기적 비전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의 공존 시기에 집중할 사안으로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강조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깊은 경험이 남아 있는 시기야말로 그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태도,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사회관습 및 제도의 제약 등을 털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 듯하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상처를 보듬고 교육훈련 종사자나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훈련자들의 디지털 주도성을 확보하는 일이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을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

이에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으로서 본 연구에서 지적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방안을 탐색하였다.

■ 제안 1) 취약계층의 디지털 문맹 해소 및 접근성 강화

가. 취약계층 디지털 문맹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였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문맹도 증가시키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각종 생활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한편으로는 편의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들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등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저소득층 등은 이전보다 더욱 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고령층(60~70대)의 디지털 역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고령층 내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나타나, 특히 70대는 접근·활용 역량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중앙일보, 2021. 5. 11.).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 산하의 50+재단에서는 “디지털 세대 이음단” 공모를 통해 50세에서 64세까지의 서울시민을 선발하고 있으며(100명), 이들은 교육을 통해 디지털 강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중앙일보, 2021. 5. 11.).

하지만 디지털 문맹 해소를 위한 활동은 일회성 사업이나 일부의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맹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 문맹 해소를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구성과 전국적 보급이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표준화된 디지털 문맹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위 교육과정을 50분 정도로 하여 구성된 교육과 실습을 주당 2회 정도, 1~2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을 패키징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한 평생학습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차 더욱 굳건해질 비대면 디지털 상황을 고려하거나, 이들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 설정과 인적자본 측면에서도 디지털 문맹 해소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평생교육 사업에 우선하여 디지털 문해를 위한 예산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문해 교육을 이수하여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다른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계 체제의 구축이다. 현재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단순 작업의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디지털 능력을 갖춘 노년층은 여타 사무 능력과 결합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의 취득으로 연결할 수 있다. 디지털 문해를 갖춘 취약계층이 상향적 직업훈련 내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나. 취약계층의 온·오프 교육훈련 접근성 강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는 교육훈련과 같은 투자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분투에 두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원금과 물품 등 생계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장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당연히, 그리고 빈틈없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교육과 훈련의 기회는 제외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교육과 훈련에서 뒤처지는 이들 계층은 다른 계층과의 인적자본의 형성에서 더 큰 격차로 이어져 더욱 큰 사회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속에는 교육과 훈련 접근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자원을 고려한 온·오프 교육훈련 전달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즉, 위기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지원은 계층별로 차별적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청소년의 경우, 학교-지역사회-가정의 삼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코로나19 시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이 실시될 경우,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은 청소년 시설 등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같이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학생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둘째, 청년, 노인, 여성 등 성인층의 경우,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전달체계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대학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각 읍면동

단위의 전달체계와 상호 연계된 접근망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 시설과 기관에는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시설과 기관의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계층도 온·오프 기반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컴퓨터 또는 태블릿 PC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 내 전달체계 및 교육훈련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안 2) 학습자 주도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유인

가. 미네르바형 학교·대학의 지원 체계 구축

오프라인에 비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학교와 대학이 급격한 온라인화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콘텐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K-MOOC와 같은 e-러닝 콘텐츠 방식은 장기간 개발 시간의 소요 문제, 접근성 문제, 품질 관리의 문제 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사실, 학교나 대학에서 부딪히는 것은 학습 콘텐츠의 문제라기보다는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운용하는지의 문제가 더 크다. 2014년부터 수업을 시작하여 근래에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미네르바 스쿨은 좋은 사례이다. 미네르바 학교는 모든 수업을 비대면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한다. [그림 10]의 장면은 현재 우리에게도 익숙한 광경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이버대학과 차이가 있다면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미리 제시된 자료를 읽고 학습하여 해당 주제를 수업 시간에 서로 토론한다. 교수는 일종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수업의 15% 이상을 발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 14] 미네르바 대학의 수업 장면

출처: 미네르바 스쿨 홈페이지. https://www.minerva.edu/(검색일: 2021. 12. 16.)

이미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교와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였고, 미네르바형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학교나 대학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학교와 대학은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수업을 운영할 유인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약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대안학교로서 금산군에 소재한 별무리학교(bmrschool.net)는 메타버스로 일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 구축은 별도의 예산 없이 학생들이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나 대학 중에는 별무리학교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미네르바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주대학교의 '파란학기제', 경희대학교의 '독립연구' 프로젝트 등은 비록 오프라인 위주의 방식으로 출발했으나, 코로나19를 경험한 지금 온·오프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타진하는 학교나 대학이 진전된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초·중등학교 단계에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모델을 만들고 학교나 대학에 공모하여 이식하는 방식보다는, 원하는 학교가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약학교(차터 스쿨)나 마그넷 스쿨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턴키(turn-key) 방식의 학교 자율성을 부여할 때 탄력을 받을 것이다.

둘째, 대학교 단계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Arm's Length Principle)'는 원칙을 적용하되, 지방대학의 특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특성상 지방대학의 경우에도 대부분 우수한 교수진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조건과 공감대만 갖추어지면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나. 학습조직과 동아리 활성화

전염균과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19 공존 시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학습과 훈련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온라인 비대면의 관계는 점점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화가 진행되더라도, 오프라인과 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계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원초적 동기와 학습의 효율성을 제공해 준다. 학습조직은 조직을 통해 새로운 학습이 되풀이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기 변화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여 년 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학습동아리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동아리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보한 ZOOM 등 온라인 기반의 환경과 기능을 더한다면 기업별, 지역별 혹은 기관별 학습조직과 동아리 문화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그리고 이들 학습조직은 자기주도적 학습문화의 기초적 토대로서, 우리나라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풀뿌리 기간 조직으로서 학습조직과 동아리는 인적자원개발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스웨덴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도 작동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의 학습동아리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기초 단위로서 학습조직과 동아리를 적극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 평생학습의 수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 문화·예술 사업, 청소년과 학교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관련 부서에서 학습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에 적극적인 대기업과 달리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 고

용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 및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육성에 대한 책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제안 3)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역량 강화

학교 단위에서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도입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15]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대면수업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블렌디드 러닝은 대면 교육이 가진 시간적, 공간적 한계나 비대면 교육이 가지는 인간적인 접촉으로 인한 관계 상실의 한계 혹은 이로 인한 동기유발 저하 등을 보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원의 관련 역량 제고는 불가피하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은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기계적 결합이 아니므로, 비대면 교육 역량과도 차별화되는 추가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학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상당 정도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블렌디드 러닝은 단순한 비대면 수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역량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도 적지 않기에, 학부모 대상의 관련 역량 강화 노력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블렌디드 러닝에 있어서 교사와 학부모는 그 역할이나 비중이 같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혀 다르지 않다.

첫째, 쌍방향 및 맞춤형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교육부나 교육청의 많은 연수에서 유지되고 있는 집합식 교육의 일방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교사들의 경우에도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든지 하여, 연수 의무화는 부과하되 연수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 시기의 원격교육에서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블렌디드 러닝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학부모 대상의 교육 및 연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학부모 대상의 연수 또한 연수 의무화는 부과하되 연수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이 가능한 방식으로

15)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는 "실험, 토론 등 탐구 중심의 과학 원격수업 방안 모색" 보도자료를 통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교육부, 2020. 7. 17.).

설계함으로써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제안 4)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평가 및 지원 방식의 도입

가. 직업훈련의 질과 성과 위주의 재정 지원

인터넷 혁명이 이루어진 이후, 직업훈련 시장에서 이러닝은 상당 정도 성과를 보였다. 인터넷 기반의 원격훈련제도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았고, 직원들은 개인별로 필요한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리 수강과 같은 훈련 부정 사건으로 직무 적합성이나 분량 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고, 이는 콘텐츠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닝 콘텐츠 분량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사실 훈련 재정 지원의 편법은 이러닝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각종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몇 사람의 교육생에게 훈련을 제공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을 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의 원칙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훈련의 재정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매우 높았다.

교육훈련의 부실한 재정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안우진 외(2020)는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을 학습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유연훈련, 실제 교수자가 피교수자에게 학습을 실시하는 시간에 근거하는 지도학습 시간, 실제 교육훈련 성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성과기반 지원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STEP(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 직업훈련 방식으로의 전면적인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매우 비탄력적이고 시간과 공간 중심의 아날로그적 접근에 머물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이 방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교사·교수의 업무 기능 및 평가 방식 재구조화

앞서 지적된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학생 활동 및 생활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수업문화에서는 자기주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간격은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처럼 달라진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 학교 교사와 대학교수의 역할 및 업무 조정은 불가피하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달라진 환경에서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지 않고 학습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 업무의 재조정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도 능동적 학습자 내지 지식 생산자로서의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교수자의 기능과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원격학습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와 운영자와의 협업도 교수자의 역할에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초·중등학교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간과 공간 단위의 교수(teaching)를 토대로 한 교원 및 수업 평가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상담, 진로설계 지원 등의 역할이 교사 업무의 주요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단위에서는 점차 학습 시스템 운영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생들 간의 협력적 태도가 중요해지는 만큼, 대학이 지식 생산을 위한 학습 플랫폼으로서 협업적 문화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자·학습자·교수자 간의 협력적 활동이 교수의 역할 설정과 평가의 앞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Ⅴ. 기대효과

이상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위기 상황을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4대 부문, 6개 영역, 24개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각 요소에서의 위기 대응 및 취약성 정도, 향후 코로나19 공존 시기에서의 대응 방향 등을 큰 윤곽에서 짚어볼 수 있었다. 이제 코로나19 전염균과의 공존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정책 방안들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한 지금부터라도 당장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이미 2년 가까운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거리두기 방식의 교육과 훈련에 상당 정도 익숙해진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이 향후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행의 측면에서 놓치기 어려운 기회를 주는 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0년대의 지식정보화 시대 진입 과정에서의 경험이 그러하다. 1990년대 초반의 PC와 인터넷의 보급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에는 벤처 열풍이 불었으며, 기업 내부에서는 인터넷에 터한 지식기반 생산 양식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그에 걸맞은 조직의 수평적 체계 구축 및 쌍방향 소통 채널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인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인터넷 열풍이 쌍방향의 수평적 문화 형성의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와 같은 기술적 편의성 차원으로 그치고 만 것이다. 인터넷이 가지는 네트워크적 특성이 인적자원개발 부문의 조직 운영 원리나 체질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기술과 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보편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이라면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을 학교교육에서의 에듀테크 산업 활용과 같은 사안들이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국면과 맞물린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을 새로운 기회로 적극 해석하고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는 취약계층의 인적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 공존 시기의 최대 전략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전체 학생 및 사회 구성원의 교육·훈련 접근성 확보에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훈련의 풀뿌리 조직에 속하여, 학교와 기업,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훈련

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도 디지털 전환의 격변기를 대비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적자원개발 환경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질·성과 위주로 작동된다는 시그널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그룹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성공사례가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분출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도일자리재단(202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자리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고용이슈리포트, 2020-03.

계보경·김혜숙·이용상·김상운·손정은·백송이(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2020). 2020년도 1학기 일반대학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 결과.

교육부(2020. 7. 17.). 실험, 토론 등 탐구 중심의 과학 원격수업 방안 모색. 보도자료.

교육부(2021. 12. 27.). '코로나 취업한파' 현실로... 대졸 취업률 65% "10년새 최저". 보도자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 평생교육백서.

금홍섭(2020).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과제와 전망. 월간 공공정책, 178, 19-21.

김승보·한애리·최영섭·엄미정(2021). 비대면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일환 외(2021). 2021년 7월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 및 특성. 주간 건강과 질병, 14(36), 2547-2560.

김주섭(2020).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제100호.

백병부(2020). 코로나19와 교육: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2020). 위드 코로나시대, 평생교육 대안 찾기. 정책동향리포트, 2020, Vol.1.

안우진·양정승·남재욱·최영섭·이영민(2020). 집체훈련비 지원단가 체계 및 자부담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교부(2020). 코로나19와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

장혜승(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전망-초중등 단계의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The HRD Review, 2020년 9월호.

정부영(2020). 코로나19로 인한 전문대학 원격수업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방향.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인사이드 리포트, 2020년 창간호.

정흥준(2020).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최선주·윤미희(2021).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연구의 주요 주제 및 이슈 분석. 인문사회21, 12(5), 1627-1642.

Borich, G.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 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1), 39-42.

Skegg, D., Gluckman, P., Boulton, G., Hackmann, H., Karim S. S. A., Piot, P., Woopen, C. (2021). Future scenarios for the COVID-19 pandemic. Lancet. 2021 Feb 27;397(10276):777-778. doi: 10.1016/S0140-6736(21)00424-4. Epub 2021 Feb 16. PMID: 33607000; PMCID: PMC7906624.

〈인터넷 자료〉

미네르바 스쿨 홈페이지. https://www.minerva.edu/(검색일: 2021. 12. 16.)

중앙일보(2021. 5. 11.). 고령층 디지털 문맹 탈출… '50+디지털 세대이음단'이 돕는다.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74(검색일 2021. 12. 17.)

중앙일보(2021. 12. 5.). "코로나에 최소 5년은 더 시달릴 것" 암울한 전망 나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9440#home(검색일: 2021. 12. 17.)

한국일보(2021. 12. 9.). '위드 코로나' 선봉장 영국, 오미크론 확산에 결국 두 손 들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910490005578(검색일: 2021. 12. 21.)

ISC(2021). COVID-19 Scenarios Project. https://council.science/covid-19-scenarios/ (검색일: 2021. 11.16)

[부록]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정책 전문가 조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정책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적자원개발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적자원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연구 분야와 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류장수

연구책임자 : 김승보

I. 다음은 Covid-19가 인적자원개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입니다.

1. Covid-19의 상황에서 **초중등 학교교육**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1) 매우 미흡했다 2) 조금 미흡했다 3) 이전과 차이가 없다.

1-1. Covid-19의 상황에서 초중등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1)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2) 학생 평가 제도와 방식
   3) 디지털 콘텐츠의 부족
   4) 디지털 교수역량의 부족
   5)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배려 부족

2. Covid-19의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1) 매우 미흡했다 2) 조금 미흡했다 3) 이전과 차이가 없다.

2-1. Covid-19의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1) 비대면 학습플랫폼 등 인프라의 부족
   2) 학사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
   3) 디지털 콘텐츠의 부족
   4) 디지털 교수역량의 부족
   5) 지방대학에 대한 취업 지원 부족

3. Covid-19의 상황에서 **직업훈련**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1) 매우 미흡했다 2) 조금 미흡했다 3) 이전과 차이가 없다.

3-1. Covid-19의 상황에서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1)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의 부족
2) 근로자 직업훈련 및 재정지원 방식의 한계
3) 원격훈련을 위한 콘텐츠 부족
4) 원격훈련에 대한 교수역량 부족
5)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

4. Covid-19의 상황에서 **평생교육**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1) 매우 미흡했다 2) 조금 미흡했다 3) 이전과 차이가 없다

4-1. Covid-19의 상황에서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1) 온라인 평생교육 인프라의 부족
2) 공급자 위주 평생교육 체계
3)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4) 원격교육에 대한 교수역량 부족
5)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II. 다음 사항에 대하여 Covid-19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만족도(5점), 위드 코로나 시기에서 정책 대응 필요성(5점)**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

	우리 사회의 대응 만족도					위드 코로나 시기 정책 대응 필요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원격수업 인프라	1	2	3	4	5	1	2	3	4	5
학생 평가(시험) 제도	1	2	3	4	5	1	2	3	4	5
교원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	1	2	3	4	5	1	2	3	4	5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1	2	3	4	5	1	2	3	4	5
학교의 디지털 교육 역량	1	2	3	4	5	1	2	3	4	5
계층 간 교육격차	1	2	3	4	5	1	2	3	4	5

2. 고등교육(대학) 부문

	우리 사회의 대응 만족도					위드 코로나 시기 정책 대응 필요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빅데이터 기반 학습플랫폼	1	2	3	4	5	1	2	3	4	5
학사 운영에 대한 규제	1	2	3	4	5	1	2	3	4	5
교원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	1	2	3	4	5	1	2	3	4	5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1	2	3	4	5	1	2	3	4	5
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1	2	3	4	5	1	2	3	4	5
지방대학생의 취업 지원	1	2	3	4	5	1	2	3	4	5

3. 직업훈련 부문

	우리 사회의 대응 만족도					위드 코로나 시기 정책 대응 필요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	1	2	3	4	5	1	2	3	4	5
근로자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1	2	3	4	5	1	2	3	4	5
재택 등 유연 근무제도 확산	1	2	3	4	5	1	2	3	4	5
원격훈련 콘텐츠의 질과 양	1	2	3	4	5	1	2	3	4	5
훈련기관의 원격기반 교육 역량	1	2	3	4	5	1	2	3	4	5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	1	2	3	4	5	1	2	3	4	5

4. 평생교육 부문

	우리 사회의 대응 만족도					위드 코로나 시기 정책 대응 필요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원격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1	2	3	4	5	1	2	3	4	5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체계	1	2	3	4	5	1	2	3	4	5
교육-일자리 연계 정보 제공	1	2	3	4	5	1	2	3	4	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콘텐츠의 질과 양	1	2	3	4	5	1	2	3	4	5
평생교육기관의 디지털 교육 역량	1	2	3	4	5	1	2	3	4	5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 직업능력개발	1	2	3	4	5	1	2	3	4	5

III.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각 항목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문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 산업의 학교교육 활용	1	2	3	4	5
	블렌디드 러닝 등 교수학습 방식 개선	1	2	3	4	5
고등교육 (대학)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시행	1	2	3	4	5
	대학생 지식생산 및 교육참여 강화	1	2	3	4	5
직업훈련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 유인체계 강화	1	2	3	4	5
	중소기업의 디지털 숙련 지원	1	2	3	4	5
평생교육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거점화	1	2	3	4	5
	평생교육 이력 및 바우처 지원 강화	1	2	3	4	5

IV. 다음은 개인의 배경에 관한 설문입니다.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3.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세종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4. 소속 대학 구분

1) 전문대학 2) 4년제 대학 3) 대학원

5. 전공계열

1) 인문 2) 사회 3) 자연 4) 공학 5) 의약학 6) 교육 7) 예체능

부록 2. 전문가 조사 결과

〈부표 1〉 응답자 PROFILE -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정책 전문가 조사

		사례수	%
전체		315	100.0
성별	남자	218	69.2
	여자	97	30.8
연령대	20대	5	1.6
	30대	18	5.7
	40대	110	34.9
	50대	129	41.0
	60대 이상	53	16.8
지역	수도권	147	46.7
	비수도권	168	53.3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27.0
	4년제 대학	202	64.1
	대학원	28	8.9
전공 계열	인문	40	12.7
	사회	122	38.7
	자연	40	12.7
	공학	50	15.9
	의약학	33	10.5
	교육	19	6.0
	예체능	11	3.5

〈부표 2〉 I-1. Covid-19의 상황에서 초중등 학교교육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단위: %)

		사례수	매우 미흡했다	조금 미흡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
전체		315	49.2	47.6	3.2
성별	남자	218	49.1	49.1	1.8
	여자	97	49.5	44.3	6.2
연령대	20대	5	20.0	80.0	0.0
	30대	18	27.8	66.7	5.6
	40대	110	50.0	45.5	4.5
	50대	129	50.4	47.3	2.3
	60대 이상	53	54.7	43.4	1.9
지역	수도권	147	46.9	51.0	2.0
	비수도권	168	51.2	44.6	4.2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42.4	52.9	4.7
	4년제 대학	202	53.0	45.0	2.0
	대학원	28	42.9	50.0	7.1
전공 계열	인문	40	52.5	42.5	5.0
	사회	122	52.5	44.3	3.3
	자연	40	17.5	75.0	7.5
	공학	50	46.0	54.0	0.0
	의약학	33	57.6	39.4	3.0
	교육	19	63.2	36.8	0.0
	예체능	11	81.8	18.2	0.0

〈부표 3〉 I-1-1. Covid-19의 상황에서 초중등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위: %)

		사례수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학생 평가 제도와 방식	디지털 콘텐츠의 부족	디지털 교수역량의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배려 부족
전체		305	39.3	4.3	13.8	26.2	16.4
성별	남자	214	42.1	3.7	14.0	27.1	13.1
	여자	91	33.0	5.5	13.2	24.2	24.2
연령대	20대	5	40.0	20.0	0.0	0.0	40.0
	30대	17	29.4	11.8	17.6	17.6	23.5
	40대	105	39.0	2.9	16.2	31.4	10.5
	50대	126	37.3	4.8	13.5	26.2	18.3
	60대 이상	52	48.1	1.9	9.6	21.2	19.2
지역	수도권	144	36.1	5.6	16.0	27.8	14.6
	비수도권	161	42.2	3.1	11.8	24.8	18.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1	39.5	4.9	9.9	29.6	16.0
	4년제 대학	198	40.9	3.5	13.6	24.7	17.2
	대학원	26	26.9	7.7	26.9	26.9	11.5
전공 계열	인문	38	36.8	2.6	18.4	18.4	23.7
	사회	118	35.6	5.1	13.6	28.8	16.9
	자연	37	51.4	10.8	16.2	16.2	5.4
	공학	50	46.0	2.0	14.0	28.0	10.0
	의약학	32	43.8	3.1	12.5	18.8	21.9
	교육	19	21.1	0.0	10.5	47.4	21.1
	예체능	11	36.4	0.0	0.0	36.4	27.3

〈부표 4〉 I-2. Covid-19의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단위: %)

		사례수	매우 미흡했다	조금 미흡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
전체		315	27.6	65.4	7.0
성별	남자	218	30.3	62.8	6.9
	여자	97	21.6	71.1	7.2
연령대	20대	5	20.0	80.0	0.0
	30대	18	11.1	88.9	0.0
	40대	110	23.6	66.4	10.0
	50대	129	29.5	65.1	5.4
	60대 이상	53	37.7	54.7	7.5
지역	수도권	147	22.4	68.0	9.5
	비수도권	168	32.1	63.1	4.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22.4	70.6	7.1
	4년제 대학	202	28.2	64.9	6.9
	대학원	28	39.3	53.6	7.1
전공 계열	인문	40	35.0	52.5	12.5
	사회	122	30.3	62.3	7.4
	자연	40	20.0	70.0	10.0
	공학	50	18.0	76.0	6.0
	의약학	33	15.2	81.8	3.0
	교육	19	42.1	57.9	0.0
	예체능	11	54.5	45.5	0.0

〈부표 5〉 I-2-1. Covid-19의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단위:%)

		사례수	비대면 학습 플랫폼 등 인프라의 부족	학사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	디지털 콘텐츠의 부족	디지털 교수역량의 부족	지방대학에 대한 취업 지원 부족
전체		293	39.9	19.1	13.3	21.5	6.1
성별	남자	203	39.4	18.2	16.3	22.2	3.9
	여자	90	41.1	21.1	6.7	20.0	11.1
연령대	20대	5	60.0	20.0	20.0	0.0	0.0
	30대	18	38.9	33.3	11.1	5.6	11.1
	40대	99	37.4	19.2	16.2	20.2	7.1
	50대	122	41.0	21.3	9.8	22.1	5.7
	60대 이상	49	40.8	8.2	16.3	30.6	4.1
지역	수도권	133	39.8	18.0	15.0	25.6	1.5
	비수도권	160	40.0	20.0	11.9	18.1	10.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79	39.2	21.5	10.1	20.3	8.9
	4년제 대학	188	41.0	18.6	12.8	22.3	5.3
	대학원	26	34.6	15.4	26.9	19.2	3.8
전공 계열	인문	35	45.7	14.3	11.4	22.9	5.7
	사회	113	38.1	19.5	14.2	23.0	5.3
	자연	36	41.7	25.0	13.9	13.9	5.6
	공학	47	42.6	12.8	21.3	19.1	4.3
	의약학	32	43.8	25.0	0.0	15.6	15.6
	교육	19	26.3	26.3	10.5	36.8	0.0
	예체능	11	36.4	9.1	18.2	27.3	9.1

〈부표 6〉 I-3. Covid-19의 상황에서 직업훈련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단위: %)

		사례수	매우 미흡했다	조금 미흡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
전체		315	49.5	43.5	7.0
성별	남자	218	50.9	42.2	6.9
	여자	97	46.4	46.4	7.2
연령대	20대	5	0.0	60.0	40.0
	30대	18	33.3	50.0	16.7
	40대	110	48.2	43.6	8.2
	50대	129	48.8	45.7	5.4
	60대 이상	53	64.2	34.0	1.9
지역	수도권	147	48.3	42.2	9.5
	비수도권	168	50.6	44.6	4.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43.5	47.1	9.4
	4년제 대학	202	51.5	42.1	6.4
	대학원	28	53.6	42.9	3.6
전공 계열	인문	40	47.5	47.5	5.0
	사회	122	50.0	42.6	7.4
	자연	40	30.0	52.5	17.5
	공학	50	50.0	44.0	6.0
	의약학	33	57.6	39.4	3.0
	교육	19	57.9	42.1	0.0
	예체능	11	81.8	18.2	0.0

〈부표 7〉 I-3-1. Covid-19의 상황에서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단위: %)

		사례수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의 부족	근로자 직업훈련 및 재정지원 방식의 한계	원격 훈련을 위한 콘텐츠 부족	원격 훈련에 대한 교수역량 부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
전체		293	52.2	13.0	24.9	7.8	2.0
성별	남자	203	50.7	12.8	25.6	8.9	2.0
	여자	90	55.6	13.3	23.3	5.6	2.2
연령대	20대	3	33.3	33.3	33.3	0.0	0.0
	30대	15	60.0	13.3	20.0	6.7	0.0
	40대	101	55.4	10.9	26.7	5.0	2.0
	50대	122	49.2	13.1	27.0	8.2	2.5
	60대 이상	52	51.9	15.4	17.3	13.5	1.9
지역	수도권	133	51.9	10.5	29.3	6.0	2.3
	비수도권	160	52.5	15.0	21.3	9.4	1.9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77	61.0	15.6	15.6	5.2	2.6
	4년제 대학	189	49.7	12.2	27.0	9.0	2.1
	대학원	27	44.4	11.1	37.0	7.4	0.0
전공 계열	인문	38	57.9	13.2	23.7	2.6	2.6
	사회	113	53.1	12.4	23.9	8.0	2.7
	자연	33	45.5	18.2	33.3	3.0	0.0
	공학	47	53.2	6.4	25.5	10.6	4.3
	의약학	32	62.5	9.4	21.9	6.3	0.0
	교육	19	36.8	21.1	31.6	10.5	0.0
	예체능	11	36.4	27.3	9.1	27.3	0.0

〈부표 8〉 I-4. Covid-19의 상황에서 평생교육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단위: %)

		사례수	매우 미흡했다	조금 미흡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
전체		315	40.3	47.9	11.7
성별	남자	218	41.3	47.7	11.0
	여자	97	38.1	48.5	13.4
연령대	20대	5	0.0	40.0	60.0
	30대	18	5.6	72.2	22.2
	40대	110	38.2	48.2	13.6
	50대	129	43.4	46.5	10.1
	60대 이상	53	52.8	43.4	3.8
지역	수도권	147	36.7	49.0	14.3
	비수도권	168	43.5	47.0	9.5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32.9	52.9	14.1
	4년제 대학	202	43.6	44.6	11.9
	대학원	28	39.3	57.1	3.6
전공계열	인문	40	35.0	57.5	7.5
	사회	122	41.0	47.5	11.5
	자연	40	22.5	55.0	22.5
	공학	50	42.0	42.0	16.0
	의약학	33	51.5	42.4	6.1
	교육	19	47.4	47.4	5.3
	예체능	11	63.6	36.4	0.0

〈부표 9〉 I-4-1. Covid-19의 상황에서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단위: %)

		사례수	온라인 평생교육 인프라의 부족	공급자 위주 평생교육 체계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원격교육에 대한 교수역량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전체		278	42.4	24.1	22.7	5.4	5.4
성별	남자	194	39.2	26.3	23.7	6.2	4.6
	여자	84	50.0	19.0	20.2	3.6	7.1
연령대	20대	2	50.0	0.0	0.0	0.0	50.0
	30대	14	35.7	14.3	28.6	7.1	14.3
	40대	95	47.4	26.3	16.8	3.2	6.3
	50대	116	41.4	25.0	24.1	5.2	4.3
	60대 이상	51	37.3	21.6	29.4	9.8	2.0
지역	수도권	126	36.5	20.6	31.7	4.8	6.3
	비수도권	152	47.4	27.0	15.1	5.9	4.6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73	39.7	26.0	20.5	8.2	5.5
	4년제 대학	178	44.9	23.6	21.9	4.5	5.1
	대학원	27	33.3	22.2	33.3	3.7	7.4
전공 계열	인문	37	45.9	13.5	27.0	2.7	10.8
	사회	108	42.6	24.1	22.2	5.6	5.6
	자연	31	35.5	22.6	35.5	3.2	3.2
	공학	42	45.2	26.2	16.7	7.1	4.8
	의약학	31	54.8	19.4	19.4	6.5	0.0
	교육	18	16.7	38.9	27.8	11.1	5.6
	예체능	11	45.5	45.5	0.0	0.0	9.1

〈부표 10〉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1. 원격 수업 인프라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1.7	36.2	34.6	15.9	1.6	2.59
성별	남자	218	11.5	39.4	31.7	15.6	1.8	2.57
	여자	97	12.4	28.9	41.2	16.5	1.0	2.65
연령대	20대	5	0.0	20.0	60.0	20.0	0.0	3.00
	30대	18	0.0	11.1	72.2	5.6	11.1	3.17
	40대	110	10.0	32.7	37.3	20.0	0.0	2.67
	50대	129	10.9	43.4	28.7	15.5	1.6	2.53
	60대 이상	53	22.6	35.8	28.3	11.3	1.9	2.34
지역	수도권	147	12.2	31.3	40.1	14.3	2.0	2.63
	비수도권	168	11.3	40.5	29.8	17.3	1.2	2.57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9.4	30.6	48.2	9.4	2.4	2.65
	4년제 대학	202	13.9	38.6	27.2	19.3	1.0	2.55
	대학원	28	3.6	35.7	46.4	10.7	3.6	2.75
전공 계열	인문	40	12.5	37.5	27.5	17.5	5.0	2.65
	사회	122	11.5	42.6	27.0	17.2	1.6	2.55
	자연	40	10.0	22.5	47.5	17.5	2.5	2.80
	공학	50	12.0	32.0	42.0	14.0	0.0	2.58
	의약학	33	12.1	30.3	42.4	15.2	0.0	2.61
	교육	19	15.8	26.3	42.1	15.8	0.0	2.58
	예체능	11	9.1	63.6	27.3	0.0	0.0	2.18

〈부표 11〉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2. 학생 평가(시험) 제도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9.2	34.6	45.1	10.8	.3	2.58
성별	남자	218	8.7	38.1	43.6	9.2	.5	2.55
	여자	97	10.3	26.8	48.5	14.4	0.0	2.67
연령대	20대	5	0.0	0.0	60.0	40.0	0.0	3.40
	30대	18	0.0	16.7	55.6	27.8	0.0	3.11
	40대	110	9.1	31.8	50.9	8.2	0.0	2.58
	50대	129	9.3	38.8	40.3	10.9	.8	2.55
	60대 이상	53	13.2	39.6	39.6	7.5	0.0	2.42
지역	수도권	147	8.8	36.1	44.2	10.9	0.0	2.57
	비수도권	168	9.5	33.3	45.8	10.7	.6	2.6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4.7	27.1	51.8	16.5	0.0	2.80
	4년제 대학	202	11.4	36.6	42.6	8.9	.5	2.50
	대학원	28	7.1	42.9	42.9	7.1	0.0	2.50
전공 계열	인문	40	7.5	37.5	42.5	12.5	0.0	2.60
	사회	122	11.5	38.5	41.0	8.2	.8	2.48
	자연	40	5.0	25.0	52.5	17.5	0.0	2.83
	공학	50	6.0	34.0	50.0	10.0	0.0	2.64
	의약학	33	9.1	30.3	42.4	18.2	0.0	2.70
	교육	19	15.8	26.3	52.6	5.3	0.0	2.47
	예체능	11	9.1	45.5	45.5	0.0	0.0	2.36

〈부표 12〉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3. 교원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7.0	27.9	54.6	9.8	.6	2.69
성별	남자	218	6.4	27.5	56.4	8.7	.9	2.70
	여자	97	8.2	28.9	50.5	12.4	0.0	2.67
연령대	20대	5	0.0	0.0	100.0	0.0	0.0	3.00
	30대	18	0.0	22.2	55.6	22.2	0.0	3.00
	40대	110	5.5	32.7	52.7	8.2	.9	2.66
	50대	129	9.3	27.1	51.2	11.6	.8	2.67
	60대 이상	53	7.5	24.5	62.3	5.7	0.0	2.66
지역	수도권	147	5.4	29.3	55.1	10.2	0.0	2.70
	비수도권	168	8.3	26.8	54.2	9.5	1.2	2.6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9.4	31.8	45.9	12.9	0.0	2.62
	4년제 대학	202	6.4	25.7	58.4	8.4	1.0	2.72
	대학원	28	3.6	32.1	53.6	10.7	0.0	2.71
전공 계열	인문	40	10.0	25.0	55.0	10.0	0.0	2.65
	사회	122	5.7	27.9	58.2	7.4	.8	2.70
	자연	40	5.0	27.5	50.0	17.5	0.0	2.80
	공학	50	4.0	28.0	56.0	12.0	0.0	2.76
	의약학	33	15.2	30.3	42.4	9.1	3.0	2.55
	교육	19	10.5	21.1	57.9	10.5	0.0	2.68
	예체능	11	0.0	45.5	54.5	0.0	0.0	2.55

〈부표 13〉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4.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2.4	45.7	30.2	10.8	1.0	2.42
성별	남자	218	13.8	50.5	23.9	10.6	1.4	2.35
	여자	97	9.3	35.1	44.3	11.3	0.0	2.58
연령대	20대	5	0.0	20.0	40.0	40.0	0.0	3.20
	30대	18	0.0	27.8	50.0	22.2	0.0	2.94
	40대	110	10.9	46.4	33.6	9.1	0.0	2.41
	50대	129	14.7	46.5	27.9	8.5	2.3	2.37
	60대 이상	53	15.1	50.9	20.8	13.2	0.0	2.32
지역	수도권	147	12.9	43.5	32.0	10.9	.7	2.43
	비수도권	168	11.9	47.6	28.6	10.7	1.2	2.42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9.4	37.6	36.5	15.3	1.2	2.61
	4년제 대학	202	14.9	49.0	26.7	8.9	.5	2.31
	대학원	28	3.6	46.4	35.7	10.7	3.6	2.64
전공 계열	인문	40	10.0	47.5	30.0	12.5	0.0	2.45
	사회	122	14.8	47.5	24.6	10.7	2.5	2.39
	자연	40	10.0	35.0	40.0	15.0	0.0	2.60
	공학	50	12.0	54.0	26.0	8.0	0.0	2.30
	의약학	33	15.2	30.3	42.4	12.1	0.0	2.52
	교육	19	10.5	52.6	26.3	10.5	0.0	2.37
	예체능	11	0.0	54.5	45.5	0.0	0.0	2.45

〈부표 14〉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5. 학교의 디지털 교육 역량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3.3	46.3	26.0	13.3	1.0	2.42
성별	남자	218	13.3	50.0	22.9	12.8	.9	2.38
	여자	97	13.4	38.1	33.0	14.4	1.0	2.52
연령대	20대	5	0.0	40.0	60.0	0.0	0.0	2.60
	30대	18	0.0	33.3	55.6	5.6	5.6	2.83
	40대	110	11.8	48.2	25.5	14.5	0.0	2.43
	50대	129	14.0	50.4	20.9	13.2	1.6	2.38
	60대 이상	53	20.8	37.7	26.4	15.1	0.0	2.36
지역	수도권	147	12.9	46.3	28.6	11.6	.7	2.41
	비수도권	168	13.7	46.4	23.8	14.9	1.2	2.43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0.6	40.0	29.4	17.6	2.4	2.61
	4년제 대학	202	15.3	50.5	22.8	10.9	.5	2.31
	대학원	28	7.1	35.7	39.3	17.9	0.0	2.68
전공 계열	인문	40	12.5	50.0	25.0	12.5	0.0	2.38
	사회	122	14.8	51.6	22.1	9.8	1.6	2.32
	자연	40	7.5	32.5	35.0	22.5	2.5	2.80
	공학	50	12.0	52.0	24.0	12.0	0.0	2.36
	의약학	33	21.2	27.3	33.3	18.2	0.0	2.48
	교육	19	15.8	52.6	15.8	15.8	0.0	2.32
	예체능	11	0.0	45.5	45.5	9.1	0.0	2.64

〈부표 15〉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6. 계층간 교육격차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28.6	45.7	20.6	4.8	.3	2.03
성별	남자	218	29.8	44.5	20.2	5.5	0.0	2.01
	여자	97	25.8	48.5	21.6	3.1	1.0	2.05
연령대	20대	5	20.0	20.0	40.0	20.0	0.0	2.60
	30대	18	11.1	27.8	50.0	5.6	5.6	2.67
	40대	110	28.2	49.1	19.1	3.6	0.0	1.98
	50대	129	32.6	43.4	19.4	4.7	0.0	1.96
	60대 이상	53	26.4	52.8	15.1	5.7	0.0	2.00
지역	수도권	147	23.8	46.3	25.2	4.8	0.0	2.11
	비수도권	168	32.7	45.2	16.7	4.8	.6	1.95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21.2	44.7	23.5	9.4	1.2	2.25
	4년제 대학	202	31.7	47.0	19.3	2.0	0.0	1.92
	대학원	28	28.6	39.3	21.4	10.7	0.0	2.14
전공 계열	인문	40	30.0	45.0	25.0	0.0	0.0	1.95
	사회	122	37.7	40.2	16.4	5.7	0.0	1.90
	자연	40	5.0	50.0	32.5	10.0	2.5	2.55
	공학	50	24.0	58.0	18.0	0.0	0.0	1.94
	의약학	33	24.2	45.5	27.3	3.0	0.0	2.09
	교육	19	31.6	47.4	5.3	15.8	0.0	2.05
	예체능	11	36.4	36.4	27.3	0.0	0.0	1.91

〈부표 16〉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1. 원격 수업 인프라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10.8	41.0	47.0	4.32
성별	남자	218	1.8	10.1	46.8	41.3	4.26
	여자	97	0.0	12.4	27.8	59.8	4.47
연령대	20대	5	0.0	0.0	80.0	20.0	4.20
	30대	18	0.0	22.2	27.8	50.0	4.28
	40대	110	2.7	12.7	39.1	45.5	4.25
	50대	129	.8	10.9	38.0	50.4	4.37
	60대 이상	53	0.0	3.8	52.8	43.4	4.40
지역	수도권	147	1.4	15.0	41.5	42.2	4.23
	비수도권	168	1.2	7.1	40.5	51.2	4.4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2	12.9	35.3	50.6	4.34
	4년제 대학	202	1.0	8.9	43.1	47.0	4.35
	대학원	28	3.6	17.9	42.9	35.7	4.07
전공 계열	인문	40	2.5	17.5	37.5	42.5	4.18
	사회	122	.8	8.2	46.7	44.3	4.34
	자연	40	2.5	12.5	30.0	55.0	4.35
	공학	50	2.0	18.0	52.0	28.0	4.04
	의약학	33	0.0	6.1	27.3	66.7	4.61
	교육	19	0.0	0.0	42.1	57.9	4.58
	예체능	11	0.0	9.1	18.2	72.7	4.64

〈부표 17〉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2. 학생 평가(시험) 제도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2.5	14.3	50.8	31.1	4.08
성별	남자	218	1.8	2.8	12.8	56.0	26.6	4.03
	여자	97	0.0	2.1	17.5	39.2	41.2	4.20
연령대	20대	5	0.0	0.0	40.0	20.0	40.0	4.00
	30대	18	0.0	0.0	22.2	33.3	44.4	4.22
	40대	110	2.7	6.4	15.5	43.6	31.8	3.95
	50대	129	.8	.8	13.2	55.0	30.2	4.13
	60대 이상	53	0.0	0.0	9.4	64.2	26.4	4.17
지역	수도권	147	.7	2.7	15.6	49.7	31.3	4.08
	비수도권	168	1.8	2.4	13.1	51.8	31.0	4.0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1.2	18.8	47.1	32.9	4.12
	4년제 대학	202	1.5	2.5	11.9	53.5	30.7	4.09
	대학원	28	3.6	7.1	17.9	42.9	28.6	3.86
전공 계열	인문	40	2.5	2.5	27.5	40.0	27.5	3.88
	사회	122	.8	1.6	8.2	58.2	31.1	4.17
	자연	40	2.5	0.0	20.0	45.0	32.5	4.05
	공학	50	2.0	6.0	18.0	60.0	14.0	3.78
	의약학	33	0.0	3.0	12.1	30.3	54.5	4.36
	교육	19	0.0	0.0	10.5	63.2	26.3	4.16
	예체능	11	0.0	9.1	9.1	27.3	54.5	4.27

〈부표 18〉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3. 교원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4.4	23.2	45.1	26.0	3.90
성별	남자	218	1.8	5.0	22.9	49.1	21.1	3.83
	여자	97	0.0	3.1	23.7	36.1	37.1	4.07
연령대	20대	5	0.0	0.0	40.0	40.0	20.0	3.80
	30대	18	0.0	16.7	16.7	38.9	27.8	3.78
	40대	110	2.7	6.4	28.2	36.4	26.4	3.77
	50대	129	.8	3.1	22.5	45.7	27.9	3.97
	60대 이상	53	0.0	0.0	15.1	64.2	20.8	4.06
지역	수도권	147	.7	6.1	24.5	44.9	23.8	3.85
	비수도권	168	1.8	3.0	22.0	45.2	28.0	3.95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4.7	18.8	47.1	29.4	4.01
	4년제 대학	202	1.5	4.5	25.2	45.0	23.8	3.85
	대학원	28	3.6	3.6	21.4	39.3	32.1	3.93
전공 계열	인문	40	2.5	5.0	32.5	35.0	25.0	3.75
	사회	122	.8	2.5	22.1	50.8	23.8	3.94
	자연	40	2.5	2.5	17.5	50.0	27.5	3.98
	공학	50	0.0	10.0	24.0	50.0	16.0	3.72
	의약학	33	3.0	0.0	21.2	27.3	48.5	4.18
	교육	19	0.0	15.8	15.8	42.1	26.3	3.79
	예체능	11	0.0	0.0	36.4	36.4	27.3	3.91

〈부표 19〉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4.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0	.6	8.6	38.7	51.1	4.38
성별	남자	218	1.4	.5	6.4	43.6	48.2	4.37
	여자	97	0.0	1.0	13.4	27.8	57.7	4.42
연령대	20대	5	0.0	0.0	0.0	80.0	20.0	4.20
	30대	18	0.0	0.0	22.2	33.3	44.4	4.22
	40대	110	1.8	.9	10.0	30.0	57.3	4.40
	50대	129	.8	.8	7.8	37.2	53.5	4.42
	60대 이상	53	0.0	0.0	3.8	58.5	37.7	4.34
지역	수도권	147	.7	.7	8.8	42.2	47.6	4.35
	비수도권	168	1.2	.6	8.3	35.7	54.2	4.41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0.0	10.6	37.6	51.8	4.41
	4년제 대학	202	1.0	.5	6.9	39.6	52.0	4.41
	대학원	28	3.6	3.6	14.3	35.7	42.9	4.11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7.5	25.0	55.0	4.30
	사회	122	.8	0.0	4.1	42.6	52.5	4.46
	자연	40	2.5	2.5	12.5	45.0	37.5	4.13
	공학	50	0.0	2.0	6.0	58.0	34.0	4.24
	의약학	33	0.0	0.0	15.2	15.2	69.7	4.55
	교육	19	0.0	0.0	5.3	21.1	73.7	4.68
	예체능	11	0.0	0.0	9.1	36.4	54.5	4.45

〈부표 20〉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5. 학교의 디지털 교육 역량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0	1.0	6.0	42.9	49.2	4.38
성별	남자	218	1.4	.9	3.7	48.2	45.9	4.36
	여자	97	0.0	1.0	11.3	30.9	56.7	4.43
연령대	20대	5	0.0	0.0	0.0	80.0	20.0	4.20
	30대	18	0.0	0.0	11.1	50.0	38.9	4.28
	40대	110	1.8	.9	10.0	32.7	54.5	4.37
	50대	129	.8	1.6	3.9	43.4	50.4	4.41
	60대 이상	53	0.0	0.0	1.9	56.6	41.5	4.40
지역	수도권	147	.7	.7	5.4	45.6	47.6	4.39
	비수도권	168	1.2	1.2	6.5	40.5	50.6	4.3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0.0	7.1	45.9	47.1	4.40
	4년제 대학	202	1.0	1.0	5.0	41.6	51.5	4.42
	대학원	28	3.6	3.6	10.7	42.9	39.3	4.11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5.0	32.5	50.0	4.28
	사회	122	.8	0.0	.8	45.1	53.3	4.50
	자연	40	2.5	2.5	10.0	45.0	40.0	4.18
	공학	50	0.0	2.0	6.0	64.0	28.0	4.18
	의약학	33	0.0	0.0	15.2	21.2	63.6	4.48
	교육	19	0.0	5.3	0.0	31.6	63.2	4.53
	예체능	11	0.0	0.0	0.0	36.4	63.6	4.64

〈부표 21〉 II-1. 초중등 학교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6. 계층간 교육격차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6	1.3	9.8	34.3	54.0	4.40
성별	남자	218	.9	.9	8.7	39.4	50.0	4.37
	여자	97	0.0	2.1	12.4	22.7	62.9	4.46
연령대	20대	5	0.0	20.0	0.0	60.0	20.0	3.80
	30대	18	0.0	0.0	27.8	22.2	50.0	4.22
	40대	110	1.8	1.8	11.8	27.3	57.3	4.36
	50대	129	0.0	.8	7.8	32.6	58.9	4.50
	60대 이상	53	0.0	0.0	5.7	54.7	39.6	4.34
지역	수도권	147	.7	1.4	11.6	36.7	49.7	4.33
	비수도권	168	.6	1.2	8.3	32.1	57.7	4.45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3.5	15.3	37.6	43.5	4.21
	4년제 대학	202	.5	0.0	7.4	34.2	57.9	4.49
	대학원	28	3.6	3.6	10.7	25.0	57.1	4.29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7.5	25.0	55.0	4.30
	사회	122	.8	.8	4.9	32.8	60.7	4.52
	자연	40	0.0	2.5	15.0	45.0	37.5	4.18
	공학	50	0.0	2.0	8.0	56.0	34.0	4.22
	의약학	33	0.0	0.0	15.2	21.2	63.6	4.48
	교육	19	0.0	5.3	15.8	10.5	68.4	4.42
	예체능	11	0.0	0.0	0.0	27.3	72.7	4.73

〈부표 22〉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1. 빅데이터 기반 학습 플랫폼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0.8	38.7	38.4	11.1	1.0	2.53
성별	남자	218	9.6	42.2	37.2	10.1	.9	2.50
	여자	97	13.4	30.9	41.2	13.4	1.0	2.58
연령대	20대	5	0.0	40.0	40.0	20.0	0.0	2.80
	30대	18	0.0	16.7	50.0	33.3	0.0	3.17
	40대	110	6.4	37.3	45.5	10.9	0.0	2.61
	50대	129	16.3	34.1	36.4	11.6	1.6	2.48
	60대 이상	53	11.3	60.4	24.5	1.9	1.9	2.23
지역	수도권	147	10.2	38.1	36.7	13.6	1.4	2.58
	비수도권	168	11.3	39.3	39.9	8.9	.6	2.4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8.2	38.8	38.8	12.9	1.2	2.60
	4년제 대학	202	12.4	39.6	37.6	9.9	.5	2.47
	대학원	28	7.1	32.1	42.9	14.3	3.6	2.75
전공 계열	인문	40	12.5	32.5	47.5	5.0	2.5	2.53
	사회	122	10.7	43.4	32.8	12.3	.8	2.49
	자연	40	7.5	32.5	45.0	15.0	0.0	2.68
	공학	50	6.0	52.0	30.0	12.0	0.0	2.48
	의약학	33	18.2	18.2	48.5	12.1	3.0	2.64
	교육	19	10.5	36.8	42.1	10.5	0.0	2.53
	예체능	11	18.2	36.4	45.5	0.0	0.0	2.27

〈부표 23〉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2. 학사 운영에 대한 규제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4.3	41.0	36.2	7.6	1.0	2.40
성별	남자	218	16.1	42.7	33.5	6.9	.9	2.34
	여자	97	10.3	37.1	42.3	9.3	1.0	2.54
연령대	20대	5	0.0	40.0	40.0	20.0	0.0	2.80
	30대	18	11.1	33.3	44.4	5.6	5.6	2.61
	40대	110	11.8	42.7	40.9	4.5	0.0	2.38
	50대	129	16.3	41.9	30.2	10.1	1.6	2.39
	60대 이상	53	17.0	37.7	37.7	7.5	0.0	2.36
지역	수도권	147	12.2	37.4	40.8	8.8	.7	2.48
	비수도권	168	16.1	44.0	32.1	6.5	1.2	2.33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4.1	40.0	36.5	7.1	2.4	2.44
	4년제 대학	202	15.3	42.1	35.6	6.4	.5	2.35
	대학원	28	7.1	35.7	39.3	17.9	0.0	2.68
전공 계열	인문	40	7.5	40.0	42.5	10.0	0.0	2.55
	사회	122	17.2	47.5	26.2	8.2	.8	2.28
	자연	40	15.0	30.0	40.0	10.0	5.0	2.60
	공학	50	12.0	38.0	46.0	4.0	0.0	2.42
	의약학	33	12.1	36.4	48.5	3.0	0.0	2.42
	교육	19	10.5	42.1	31.6	15.8	0.0	2.53
	예체능	11	27.3	36.4	36.4	0.0	0.0	2.09

〈부표 24〉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3. 교원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혹은 대학 재정 확충)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5.2	38.4	40.6	5.7	2.37
성별	남자	218	15.6	36.7	42.7	5.0	2.37
	여자	97	14.4	42.3	36.1	7.2	2.36
연령대	20대	5	0.0	40.0	60.0	0.0	2.60
	30대	18	5.6	50.0	38.9	5.6	2.44
	40대	110	17.3	41.8	39.1	1.8	2.25
	50대	129	18.6	34.9	37.2	9.3	2.37
	60대 이상	53	7.5	35.8	50.9	5.7	2.55
지역	수도권	147	12.9	42.2	40.8	4.1	2.36
	비수도권	168	17.3	35.1	40.5	7.1	2.3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0.6	40.0	40.0	9.4	2.48
	4년제 대학	202	17.8	39.1	39.1	4.0	2.29
	대학원	28	10.7	28.6	53.6	7.1	2.57
전공 계열	인문	40	12.5	47.5	40.0	0.0	2.28
	사회	122	20.5	38.5	35.2	5.7	2.26
	자연	40	15.0	32.5	42.5	10.0	2.48
	공학	50	2.0	30.0	58.0	10.0	2.76
	의약학	33	21.2	30.3	45.5	3.0	2.30
	교육	19	21.1	47.4	26.3	5.3	2.16
	예체능	11	0.0	72.7	27.3	0.0	2.27

〈부표 25〉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4.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1.4	39.0	39.0	9.8	.6	2.49
성별	남자	218	11.5	44.0	35.3	8.3	.9	2.43
	여자	97	11.3	27.8	47.4	13.4	0.0	2.63
연령대	20대	5	0.0	40.0	60.0	0.0	0.0	2.60
	30대	18	0.0	16.7	72.2	11.1	0.0	2.94
	40대	110	10.0	36.4	43.6	10.0	0.0	2.54
	50대	129	9.3	46.5	32.6	10.1	1.6	2.48
	60대 이상	53	24.5	34.0	32.1	9.4	0.0	2.26
지역	수도권	147	12.9	38.8	41.5	5.4	1.4	2.44
	비수도권	168	10.1	39.3	36.9	13.7	0.0	2.54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9.4	29.4	44.7	15.3	1.2	2.69
	4년제 대학	202	12.4	43.6	35.6	7.9	.5	2.41
	대학원	28	10.7	35.7	46.4	7.1	0.0	2.50
전공 계열	인문	40	10.0	50.0	30.0	10.0	0.0	2.40
	사회	122	13.1	41.8	36.1	7.4	1.6	2.43
	자연	40	7.5	27.5	50.0	15.0	0.0	2.73
	공학	50	10.0	40.0	42.0	8.0	0.0	2.48
	의약학	33	12.1	18.2	48.5	21.2	0.0	2.79
	교육	19	15.8	47.4	31.6	5.3	0.0	2.26
	예체능	11	9.1	54.5	36.4	0.0	0.0	2.27

〈부표 26〉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5. 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1.1	40.0	33.0	13.7	2.2	2.56
성별	남자	218	10.6	44.0	30.7	12.4	2.3	2.52
	여자	97	12.4	30.9	38.1	16.5	2.1	2.65
연령대	20대	5	0.0	60.0	40.0	0.0	0.0	2.40
	30대	18	0.0	27.8	61.1	11.1	0.0	2.83
	40대	110	9.1	40.0	34.5	14.5	1.8	2.60
	50대	129	10.9	41.1	29.5	15.5	3.1	2.59
	60대 이상	53	20.8	39.6	28.3	9.4	1.9	2.32
지역	수도권	147	10.9	39.5	33.3	15.0	1.4	2.56
	비수도권	168	11.3	40.5	32.7	12.5	3.0	2.55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0.6	30.6	38.8	17.6	2.4	2.71
	4년제 대학	202	11.4	45.0	30.2	11.4	2.0	2.48
	대학원	28	10.7	32.1	35.7	17.9	3.6	2.71
전공 계열	인문	40	10.0	52.5	20.0	15.0	2.5	2.48
	사회	122	12.3	45.9	27.0	13.1	1.6	2.46
	자연	40	7.5	35.0	32.5	25.0	0.0	2.75
	공학	50	8.0	38.0	38.0	12.0	4.0	2.66
	의약학	33	15.2	21.2	51.5	6.1	6.1	2.67
	교육	19	15.8	26.3	42.1	15.8	0.0	2.58
	예체능	11	9.1	36.4	54.5	0.0	0.0	2.45

〈부표 27〉 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6. 지방 대학생의 취업 지원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평균
전체		315	21.3	41.9	33.7	3.2	2.19
성별	남자	218	23.4	39.9	33.5	3.2	2.17
	여자	97	16.5	46.4	34.0	3.1	2.24
연령대	20대	5	0.0	60.0	40.0	0.0	2.40
	30대	18	11.1	33.3	44.4	11.1	2.56
	40대	110	18.2	40.9	39.1	1.8	2.25
	50대	129	25.6	39.5	31.8	3.1	2.12
	60대 이상	53	22.6	50.9	22.6	3.8	2.08
지역	수도권	147	11.6	38.1	46.3	4.1	2.43
	비수도권	168	29.8	45.2	22.6	2.4	1.9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6.5	48.2	30.6	4.7	2.24
	4년제 대학	202	24.3	38.1	34.7	3.0	2.16
	대학원	28	14.3	50.0	35.7	0.0	2.21
전공 계열	인문	40	15.0	52.5	32.5	0.0	2.18
	사회	122	29.5	36.9	29.5	4.1	2.08
	자연	40	15.0	40.0	37.5	7.5	2.38
	공학	50	12.0	44.0	42.0	2.0	2.34
	의약학	33	24.2	42.4	33.3	0.0	2.09
	교육	19	15.8	36.8	42.1	5.3	2.37
	예체능	11	18.2	63.6	18.2	0.0	2.00

〈부표 28〉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1. 빅데이터 기반 학습 플랫폼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6	1.0	17.5	44.4	35.6	4.11
성별	남자	218	2.3	1.4	18.3	49.5	28.4	4.00
	여자	97	0.0	0.0	15.5	33.0	51.5	4.36
연령대	20대	5	0.0	0.0	20.0	40.0	40.0	4.20
	30대	18	0.0	5.6	27.8	44.4	22.2	3.83
	40대	110	2.7	.9	25.5	39.1	31.8	3.96
	50대	129	1.6	.8	13.2	41.9	42.6	4.23
	60대 이상	53	0.0	0.0	7.5	62.3	30.2	4.23
지역	수도권	147	.7	.7	21.1	44.2	33.3	4.09
	비수도권	168	2.4	1.2	14.3	44.6	37.5	4.14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1.2	14.1	48.2	36.5	4.20
	4년제 대학	202	2.0	.5	18.8	44.1	34.7	4.09
	대학원	28	3.6	3.6	17.9	35.7	39.3	4.04
전공 계열	인문	40	2.5	2.5	17.5	37.5	40.0	4.10
	사회	122	1.6	.8	17.2	53.3	27.0	4.03
	자연	40	2.5	0.0	17.5	37.5	42.5	4.18
	공학	50	0.0	2.0	32.0	42.0	24.0	3.88
	의약학	33	3.0	0.0	6.1	30.3	60.6	4.45
	교육	19	0.0	0.0	10.5	42.1	47.4	4.37
	예체능	11	0.0	0.0	0.0	54.5	45.5	4.45

〈부표 29〉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2. 학사 운영에 대한 규제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2.2	6.3	17.1	44.8	29.5	3.93
성별	남자	218	2.8	6.0	17.0	48.2	26.1	3.89
	여자	97	1.0	7.2	17.5	37.1	37.1	4.02
연령대	20대	5	0.0	0.0	20.0	40.0	40.0	4.20
	30대	18	5.6	5.6	16.7	55.6	16.7	3.72
	40대	110	2.7	3.6	21.8	39.1	32.7	3.95
	50대	129	2.3	10.1	12.4	45.0	30.2	3.91
	60대 이상	53	0.0	3.8	18.9	52.8	24.5	3.98
지역	수도권	147	2.7	7.5	20.4	43.5	25.9	3.82
	비수도권	168	1.8	5.4	14.3	45.8	32.7	4.02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2.4	5.9	16.5	48.2	27.1	3.92
	4년제 대학	202	2.0	7.4	16.3	43.1	31.2	3.94
	대학원	28	3.6	0.0	25.0	46.4	25.0	3.89
전공 계열	인문	40	2.5	5.0	25.0	40.0	27.5	3.85
	사회	122	2.5	6.6	14.8	46.7	29.5	3.94
	자연	40	2.5	2.5	17.5	45.0	32.5	4.03
	공학	50	0.0	8.0	24.0	54.0	14.0	3.74
	의약학	33	3.0	3.0	9.1	33.3	51.5	4.27
	교육	19	0.0	21.1	10.5	52.6	15.8	3.63
	예체능	11	9.1	0.0	18.2	18.2	54.5	4.09

〈부표 30〉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3. 교원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혹은 대학 재정 확충)

(단위:%)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2.9	18.4	44.8	32.7	4.05
성별	남자	218	1.8	3.7	17.4	46.8	30.3	4.00
	여자	97	0.0	1.0	20.6	40.2	38.1	4.15
연령대	20대	5	0.0	0.0	20.0	40.0	40.0	4.20
	30대	18	0.0	5.6	22.2	50.0	22.2	3.89
	40대	110	2.7	1.8	16.4	40.9	38.2	4.10
	50대	129	.8	3.9	20.9	40.3	34.1	4.03
	60대 이상	53	0.0	1.9	15.1	62.3	20.8	4.02
지역	수도권	147	.7	2.7	17.0	49.0	30.6	4.06
	비수도권	168	1.8	3.0	19.6	41.1	34.5	4.04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1.2	16.5	50.6	31.8	4.13
	4년제 대학	202	1.5	4.0	18.8	42.1	33.7	4.02
	대학원	28	3.6	0.0	21.4	46.4	28.6	3.96
전공 계열	인문	40	2.5	2.5	22.5	42.5	30.0	3.95
	사회	122	.8	4.1	18.0	38.5	38.5	4.10
	자연	40	2.5	2.5	20.0	40.0	35.0	4.03
	공학	50	0.0	2.0	24.0	58.0	16.0	3.88
	의약학	33	3.0	0.0	12.1	39.4	45.5	4.24
	교육	19	0.0	5.3	5.3	63.2	26.3	4.11
	예체능	11	0.0	0.0	18.2	63.6	18.2	4.00

〈부표 31〉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4.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과 양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0	.6	11.4	44.8	42.2	4.27
성별	남자	218	1.4	.9	10.1	50.9	36.7	4.21
	여자	97	0.0	0.0	14.4	30.9	54.6	4.40
연령대	20대	5	0.0	0.0	40.0	20.0	40.0	4.00
	30대	18	0.0	0.0	16.7	50.0	33.3	4.17
	40대	110	1.8	.9	10.9	47.3	39.1	4.21
	50대	129	.8	.8	12.4	41.1	45.0	4.29
	60대 이상	53	0.0	0.0	5.7	49.1	45.3	4.40
지역	수도권	147	.7	0.0	13.6	42.9	42.9	4.27
	비수도권	168	1.2	1.2	9.5	46.4	41.7	4.26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0.0	8.2	47.1	44.7	4.36
	4년제 대학	202	1.0	1.0	10.9	46.0	41.1	4.25
	대학원	28	3.6	0.0	25.0	28.6	42.9	4.07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7.5	42.5	47.5	4.33
	사회	122	.8	.8	13.9	42.6	41.8	4.24
	자연	40	2.5	0.0	15.0	45.0	37.5	4.15
	공학	50	0.0	0.0	12.0	66.0	22.0	4.10
	의약학	33	0.0	3.0	6.1	30.3	60.6	4.48
	교육	19	0.0	0.0	5.3	42.1	52.6	4.47
	예체능	11	0.0	0.0	9.1	27.3	63.6	4.55

〈부표 32〉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5. 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1.0	9.5	45.1	43.2	4.28
성별	남자	218	1.8	.9	9.6	49.5	38.1	4.21
	여자	97	0.0	1.0	9.3	35.1	54.6	4.43
연령대	20대	5	0.0	0.0	20.0	40.0	40.0	4.20
	30대	18	0.0	5.6	0.0	55.6	38.9	4.28
	40대	110	2.7	0.0	10.0	46.4	40.9	4.23
	50대	129	.8	1.6	12.4	38.0	47.3	4.29
	60대 이상	53	0.0	0.0	3.8	56.6	39.6	4.36
지역	수도권	147	.7	0.0	11.6	45.6	42.2	4.29
	비수도권	168	1.8	1.8	7.7	44.6	44.0	4.27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1.2	8.2	44.7	45.9	4.35
	4년제 대학	202	1.5	1.0	8.9	46.0	42.6	4.27
	대학원	28	3.6	0.0	17.9	39.3	39.3	4.11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0.0	35.0	52.5	4.35
	사회	122	.8	1.6	8.2	46.7	42.6	4.29
	자연	40	2.5	0.0	12.5	47.5	37.5	4.18
	공학	50	0.0	2.0	14.0	56.0	28.0	4.10
	의약학	33	3.0	0.0	6.1	30.3	60.6	4.45
	교육	19	0.0	0.0	10.5	42.1	47.4	4.37
	예체능	11	0.0	0.0	0.0	54.5	45.5	4.45

〈부표 33〉 II-2.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6. 지방 대학생의 취업 지원

(단위:%)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9	2.5	14.9	35.2	45.4	4.20
성별	남자	218	2.8	1.8	17.4	34.4	43.6	4.14
	여자	97	0.0	4.1	9.3	37.1	49.5	4.32
연령대	20대	5	0.0	0.0	20.0	40.0	40.0	4.20
	30대	18	5.6	5.6	16.7	33.3	38.9	3.94
	40대	110	3.6	1.8	13.6	35.5	45.5	4.17
	50대	129	.8	3.9	18.6	30.2	46.5	4.18
	60대 이상	53	0.0	0.0	7.5	47.2	45.3	4.38
지역	수도권	147	2.0	2.7	24.5	38.1	32.7	3.97
	비수도권	168	1.8	2.4	6.5	32.7	56.5	4.4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2.4	1.2	9.4	41.2	45.9	4.27
	4년제 대학	202	1.5	3.0	17.3	32.2	46.0	4.18
	대학원	28	3.6	3.6	14.3	39.3	39.3	4.07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5.0	40.0	42.5	4.20
	사회	122	.8	2.5	16.4	30.3	50.0	4.26
	자연	40	2.5	5.0	15.0	40.0	37.5	4.05
	공학	50	4.0	0.0	20.0	42.0	34.0	4.02
	의약학	33	0.0	6.1	0.0	33.3	60.6	4.48
	교육	19	5.3	5.3	21.1	31.6	36.8	3.89
	예체능	11	0.0	0.0	9.1	36.4	54.5	4.45

〈부표 34〉 II-3. 직업훈련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1.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

(단위:%)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4.0	49.5	31.1	5.1	.3	2.28
성별	남자	218	12.8	51.4	29.8	5.5	.5	2.29
	여자	97	16.5	45.4	34.0	4.1	0.0	2.26
연령대	20대	5	0.0	40.0	60.0	0.0	0.0	2.60
	30대	18	0.0	33.3	55.6	5.6	5.6	2.83
	40대	110	12.7	47.3	35.5	4.5	0.0	2.32
	50대	129	14.7	53.5	25.6	6.2	0.0	2.23
	60대 이상	53	20.8	50.9	24.5	3.8	0.0	2.11
지역	수도권	147	11.6	45.6	38.1	4.1	.7	2.37
	비수도권	168	16.1	53.0	25.0	6.0	0.0	2.21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9.4	47.1	36.5	7.1	0.0	2.41
	4년제 대학	202	16.8	50.0	28.7	4.0	.5	2.21
	대학원	28	7.1	53.6	32.1	7.1	0.0	2.39
전공 계열	인문	40	12.5	50.0	35.0	0.0	2.5	2.30
	사회	122	15.6	50.0	27.9	6.6	0.0	2.25
	자연	40	2.5	47.5	40.0	10.0	0.0	2.58
	공학	50	14.0	48.0	36.0	2.0	0.0	2.26
	의약학	33	21.2	45.5	24.2	9.1	0.0	2.21
	교육	19	10.5	47.4	42.1	0.0	0.0	2.32
	예체능	11	27.3	72.7	0.0	0.0	0.0	1.73

〈부표 35〉 직업훈련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2. 근로자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평균
전체		315	7.6	42.5	42.5	7.3	2.50
성별	남자	218	5.5	46.8	40.4	7.3	2.50
	여자	97	12.4	33.0	47.4	7.2	2.49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2.80
	30대	18	5.6	22.2	61.1	11.1	2.78
	40대	110	6.4	40.0	47.3	6.4	2.54
	50대	129	10.9	43.4	35.7	10.1	2.45
	60대 이상	53	3.8	54.7	39.6	1.9	2.40
지역	수도권	147	5.4	40.1	48.3	6.1	2.55
	비수도권	168	9.5	44.6	37.5	8.3	2.45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5.9	35.3	50.6	8.2	2.61
	4년제 대학	202	8.4	45.5	40.1	5.9	2.44
	대학원	28	7.1	42.9	35.7	14.3	2.57
전공 계열	인문	40	5.0	45.0	50.0	0.0	2.45
	사회	122	9.0	46.7	36.1	8.2	2.43
	자연	40	0.0	32.5	57.5	10.0	2.78
	공학	50	4.0	42.0	46.0	8.0	2.58
	의약학	33	18.2	33.3	39.4	9.1	2.39
	교육	19	5.3	36.8	47.4	10.5	2.63
	예체능	11	18.2	63.6	18.2	0.0	2.00

〈부표 36〉 II-3. 직업훈련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3. 재택 등 유연 근무제도 확산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6.3	31.4	39.0	21.6	1.6	2.81
성별	남자	218	4.1	33.0	37.6	23.4	1.8	2.86
	여자	97	11.3	27.8	42.3	17.5	1.0	2.69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0.0	2.80
	30대	18	5.6	11.1	38.9	44.4	0.0	3.22
	40대	110	5.5	32.7	38.2	20.9	2.7	2.83
	50대	129	7.8	34.1	37.2	19.4	1.6	2.73
	60대 이상	53	5.7	30.2	41.5	22.6	0.0	2.81
지역	수도권	147	6.1	29.9	38.1	25.2	.7	2.84
	비수도권	168	6.5	32.7	39.9	18.5	2.4	2.77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8.2	35.3	38.8	15.3	2.4	2.68
	4년제 대학	202	6.4	30.2	38.6	23.3	1.5	2.83
	대학원	28	0.0	28.6	42.9	28.6	0.0	3.00
전공 계열	인문	40	5.0	32.5	45.0	17.5	0.0	2.75
	사회	122	6.6	36.1	31.1	24.6	1.6	2.79
	자연	40	0.0	32.5	40.0	22.5	5.0	3.00
	공학	50	4.0	26.0	48.0	20.0	2.0	2.90
	의약학	33	18.2	24.2	39.4	18.2	0.0	2.58
	교육	19	5.3	26.3	47.4	21.1	0.0	2.84
	예체능	11	9.1	27.3	45.5	18.2	0.0	2.73

〈부표 37〉 II-3. 직업훈련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4. 원격 훈련 콘텐츠의 질과 양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2.4	45.4	32.4	9.5	.3	2.40
성별	남자	218	11.9	49.1	28.4	10.1	.5	2.38
	여자	97	13.4	37.1	41.2	8.2	0.0	2.44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0.0	2.80
	30대	18	0.0	27.8	61.1	11.1	0.0	2.83
	40대	110	14.5	40.9	34.5	10.0	0.0	2.40
	50대	129	12.4	49.6	27.9	9.3	.8	2.36
	60대 이상	53	13.2	52.8	24.5	9.4	0.0	2.30
지역	수도권	147	10.9	46.9	34.0	7.5	.7	2.40
	비수도권	168	13.7	44.0	31.0	11.3	0.0	2.4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8.2	38.8	40.0	11.8	1.2	2.59
	4년제 대학	202	14.9	47.5	29.7	7.9	0.0	2.31
	대학원	28	7.1	50.0	28.6	14.3	0.0	2.50
전공 계열	인문	40	12.5	45.0	30.0	12.5	0.0	2.43
	사회	122	13.9	50.8	25.4	9.0	.8	2.32
	자연	40	7.5	25.0	57.5	10.0	0.0	2.70
	공학	50	8.0	48.0	36.0	8.0	0.0	2.44
	의약학	33	15.2	36.4	36.4	12.1	0.0	2.45
	교육	19	21.1	47.4	21.1	10.5	0.0	2.21
	예체능	11	9.1	72.7	18.2	0.0	0.0	2.09

〈부표 38〉 II-3. 직업훈련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5. 훈련기관의 원격기반 교육 역량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4.3	44.4	32.1	8.6	.6	2.37
성별	남자	218	13.8	46.8	29.4	9.2	.9	2.37
	여자	97	15.5	39.2	38.1	7.2	0.0	2.37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0.0	2.80
	30대	18	5.6	22.2	50.0	22.2	0.0	2.89
	40대	110	14.5	40.0	37.3	7.3	.9	2.40
	50대	129	13.2	52.7	25.6	7.8	.8	2.30
	60대 이상	53	20.8	43.4	26.4	9.4	0.0	2.25
지역	수도권	147	14.3	44.2	29.9	10.2	1.4	2.40
	비수도권	168	14.3	44.6	33.9	7.1	0.0	2.34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1.8	38.8	35.3	11.8	2.4	2.54
	4년제 대학	202	15.8	46.0	30.2	7.9	0.0	2.30
	대학원	28	10.7	50.0	35.7	3.6	0.0	2.32
전공 계열	인문	40	17.5	40.0	32.5	10.0	0.0	2.35
	사회	122	17.2	45.9	28.7	6.6	1.6	2.30
	자연	40	5.0	32.5	50.0	12.5	0.0	2.70
	공학	50	12.0	46.0	30.0	12.0	0.0	2.42
	의약학	33	15.2	48.5	30.3	6.1	0.0	2.27
	교육	19	10.5	52.6	26.3	10.5	0.0	2.37
	예체능	11	18.2	54.5	27.3	0.0	0.0	2.09

〈부표 39〉 II-3. 직업훈련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6.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평균
전체		315	19.7	46.0	31.4	2.9	2.17
성별	남자	218	17.9	46.8	31.7	3.7	2.21
	여자	97	23.7	44.3	30.9	1.0	2.09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2.80
	30대	18	5.6	44.4	44.4	5.6	2.50
	40대	110	20.0	47.3	30.9	1.8	2.15
	50대	129	20.9	48.8	26.4	3.9	2.13
	60대 이상	53	22.6	39.6	35.8	1.9	2.17
지역	수도권	147	16.3	44.9	36.1	2.7	2.25
	비수도권	168	22.6	47.0	27.4	3.0	2.11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5.3	43.5	38.8	2.4	2.28
	4년제 대학	202	22.3	47.0	28.7	2.0	2.10
	대학원	28	14.3	46.4	28.6	10.7	2.36
전공 계열	인문	40	15.0	50.0	32.5	2.5	2.23
	사회	122	24.6	50.0	21.3	4.1	2.05
	자연	40	10.0	40.0	47.5	2.5	2.43
	공학	50	14.0	42.0	44.0	0.0	2.30
	의약학	33	21.2	48.5	30.3	0.0	2.09
	교육	19	21.1	31.6	36.8	10.5	2.37
	예체능	11	36.4	45.5	18.2	0.0	1.82

〈부표 40〉 II-3. 직업훈련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1.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

(단위:%)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0	1.0	10.8	56.5	30.8	4.15
성별	남자	218	1.4	.9	11.0	59.6	27.1	4.10
	여자	97	0.0	1.0	10.3	49.5	39.2	4.27
연령대	20대	5	0.0	0.0	0.0	80.0	20.0	4.20
	30대	18	0.0	0.0	27.8	55.6	16.7	3.89
	40대	110	1.8	.9	11.8	50.9	34.5	4.15
	50대	129	.8	.8	11.6	54.3	32.6	4.17
	60대 이상	53	0.0	1.9	1.9	71.7	24.5	4.19
지역	수도권	147	.7	.7	14.3	56.5	27.9	4.10
	비수도권	168	1.2	1.2	7.7	56.5	33.3	4.2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1.2	11.8	62.4	24.7	4.11
	4년제 대학	202	1.0	1.0	9.9	55.4	32.7	4.18
	대학원	28	3.6	0.0	14.3	46.4	35.7	4.11
전공 계열	인문	40	2.5	2.5	10.0	55.0	30.0	4.08
	사회	122	.8	.8	13.1	56.6	28.7	4.11
	자연	40	2.5	0.0	5.0	62.5	30.0	4.18
	공학	50	0.0	0.0	14.0	72.0	14.0	4.00
	의약학	33	0.0	3.0	3.0	45.5	48.5	4.39
	교육	19	0.0	0.0	15.8	36.8	47.4	4.32
	예체능	11	0.0	0.0	9.1	36.4	54.5	4.45

〈부표 41〉 II-3. 직업훈련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2. 근로자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6	1.6	16.5	57.5	22.9	3.98
성별	남자	218	1.8	1.8	18.3	58.7	19.3	3.92
	여자	97	1.0	1.0	12.4	54.6	30.9	4.13
연령대	20대	5	0.0	0.0	20.0	60.0	20.0	4.00
	30대	18	0.0	0.0	33.3	44.4	22.2	3.89
	40대	110	2.7	2.7	16.4	56.4	21.8	3.92
	50대	129	1.6	1.6	18.6	53.5	24.8	3.98
	60대 이상	53	0.0	0.0	5.7	73.6	20.8	4.15
지역	수도권	147	1.4	.7	21.1	57.1	19.7	3.93
	비수도권	168	1.8	2.4	12.5	57.7	25.6	4.03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2	0.0	15.3	60.0	23.5	4.05
	4년제 대학	202	1.5	2.5	17.3	55.9	22.8	3.96
	대학원	28	3.6	0.0	14.3	60.7	21.4	3.96
전공 계열	인문	40	5.0	0.0	5.0	62.5	27.5	4.08
	사회	122	.8	2.5	20.5	54.9	21.3	3.93
	자연	40	2.5	0.0	15.0	60.0	22.5	4.00
	공학	50	0.0	2.0	30.0	62.0	6.0	3.72
	의약학	33	3.0	0.0	3.0	54.5	39.4	4.27
	교육	19	0.0	5.3	15.8	57.9	21.1	3.95
	예체능	11	0.0	0.0	0.0	45.5	54.5	4.55

〈부표 42〉 II-3. 직업훈련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3. 재택 등 유연 근무제도 확산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9	2.2	14.9	55.6	25.4	4.00
성별	남자	218	2.8	2.3	16.5	58.3	20.2	3.91
	여자	97	0.0	2.1	11.3	49.5	37.1	4.22
연령대	20대	5	0.0	0.0	0.0	80.0	20.0	4.20
	30대	18	0.0	11.1	5.6	66.7	16.7	3.89
	40대	110	3.6	.9	18.2	50.9	26.4	3.95
	50대	129	1.6	3.1	16.3	48.8	30.2	4.03
	60대 이상	53	0.0	0.0	9.4	75.5	15.1	4.06
지역	수도권	147	1.4	4.1	13.6	57.1	23.8	3.98
	비수도권	168	2.4	.6	16.1	54.2	26.8	4.02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2	2.4	17.6	51.8	27.1	4.01
	4년제 대학	202	2.0	2.0	14.4	56.9	24.8	4.00
	대학원	28	3.6	3.6	10.7	57.1	25.0	3.96
전공 계열	인문	40	2.5	5.0	12.5	55.0	25.0	3.95
	사회	122	2.5	1.6	10.7	62.3	23.0	4.02
	자연	40	2.5	0.0	17.5	57.5	22.5	3.98
	공학	50	0.0	6.0	24.0	56.0	14.0	3.78
	의약학	33	3.0	0.0	9.1	39.4	48.5	4.30
	교육	19	0.0	0.0	31.6	47.4	21.1	3.89
	예체능	11	0.0	0.0	9.1	36.4	54.5	4.45

〈부표 43〉 II-3. 직업훈련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4. 원격 훈련 콘텐츠의 질과 양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0	.3	11.1	51.1	36.5	4.22
성별	남자	218	1.4	0.0	11.5	54.6	32.6	4.17
	여자	97	0.0	1.0	10.3	43.3	45.4	4.33
연령대	20대	5	0.0	0.0	0.0	80.0	20.0	4.20
	30대	18	0.0	0.0	27.8	55.6	16.7	3.89
	40대	110	1.8	0.0	12.7	51.8	33.6	4.15
	50대	129	.8	.8	9.3	46.5	42.6	4.29
	60대 이상	53	0.0	0.0	7.5	56.6	35.8	4.28
지역	수도권	147	.7	.7	12.9	49.0	36.7	4.20
	비수도권	168	1.2	0.0	9.5	53.0	36.3	4.23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0.0	14.1	51.8	34.1	4.20
	4년제 대학	202	1.0	.5	8.9	52.5	37.1	4.24
	대학원	28	3.6	0.0	17.9	39.3	39.3	4.11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5.0	42.5	40.0	4.18
	사회	122	.8	.8	9.0	54.9	34.4	4.21
	자연	40	2.5	0.0	12.5	65.0	20.0	4.00
	공학	50	0.0	0.0	14.0	58.0	28.0	4.14
	의약학	33	0.0	0.0	6.1	36.4	57.6	4.52
	교육	19	0.0	0.0	10.5	36.8	52.6	4.42
	예체능	11	0.0	0.0	18.2	27.3	54.5	4.36

〈부표 44〉 II-3. 직업훈련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5. 훈련기관의 원격기반 교육 역량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0	.3	11.1	53.0	34.6	4.20
성별	남자	218	1.4	0.0	11.5	56.9	30.3	4.15
	여자	97	0.0	1.0	10.3	44.3	44.3	4.32
연령대	20대	5	0.0	0.0	0.0	80.0	20.0	4.20
	30대	18	0.0	0.0	22.2	61.1	16.7	3.94
	40대	110	1.8	0.0	11.8	49.1	37.3	4.20
	50대	129	.8	.8	13.2	48.8	36.4	4.19
	60대 이상	53	0.0	0.0	1.9	66.0	32.1	4.30
지역	수도권	147	.7	.7	11.6	52.4	34.7	4.20
	비수도권	168	1.2	0.0	10.7	53.6	34.5	4.2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0.0	11.8	51.8	36.5	4.25
	4년제 대학	202	1.0	.5	9.4	55.4	33.7	4.20
	대학원	28	3.6	0.0	21.4	39.3	35.7	4.04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7.5	55.0	35.0	4.20
	사회	122	.8	.8	11.5	54.1	32.8	4.17
	자연	40	2.5	0.0	12.5	62.5	22.5	4.03
	공학	50	0.0	0.0	16.0	56.0	28.0	4.12
	의약학	33	0.0	0.0	6.1	39.4	54.5	4.48
	교육	19	0.0	0.0	10.5	47.4	42.1	4.32
	예체능	11	0.0	0.0	9.1	36.4	54.5	4.45

〈부표 45〉 II-3. 직업훈련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6.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0	1.0	13.3	48.9	35.9	4.18
성별	남자	218	1.4	.9	14.7	50.9	32.1	4.11
	여자	97	0.0	1.0	10.3	44.3	44.3	4.32
연령대	20대	5	0.0	0.0	0.0	80.0	20.0	4.20
	30대	18	0.0	5.6	16.7	50.0	27.8	4.00
	40대	110	1.8	.9	11.8	46.4	39.1	4.20
	50대	129	.8	.8	15.5	48.1	34.9	4.16
	60대 이상	53	0.0	0.0	11.3	52.8	35.8	4.25
지역	수도권	147	.7	1.4	17.0	51.0	29.9	4.08
	비수도권	168	1.2	.6	10.1	47.0	41.1	4.26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0.0	17.6	54.1	28.2	4.11
	4년제 대학	202	1.0	1.5	10.9	47.0	39.6	4.23
	대학원	28	3.6	0.0	17.9	46.4	32.1	4.04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7.5	35.0	45.0	4.20
	사회	122	.8	1.6	10.7	50.8	36.1	4.20
	자연	40	2.5	0.0	7.5	67.5	22.5	4.08
	공학	50	0.0	0.0	24.0	54.0	22.0	3.98
	의약학	33	0.0	3.0	3.0	39.4	54.5	4.45
	교육	19	0.0	0.0	31.6	31.6	36.8	4.05
	예체능	11	0.0	0.0	0.0	45.5	54.5	4.55

〈부표 46〉 II-4. 평생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1. 원격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9.2	43.5	34.9	12.1	.3	2.51
성별	남자	218	9.6	47.7	31.2	11.0	.5	2.45
	여자	97	8.2	34.0	43.3	14.4	0.0	2.64
연령대	20대	5	0.0	0.0	100.0	0.0	0.0	3.00
	30대	18	0.0	16.7	50.0	33.3	0.0	3.17
	40대	110	9.1	44.5	35.5	10.9	0.0	2.48
	50대	129	9.3	45.0	34.1	10.9	.8	2.49
	60대 이상	53	13.2	50.9	24.5	11.3	0.0	2.34
지역	수도권	147	8.2	40.1	36.1	15.0	.7	2.60
	비수도권	168	10.1	46.4	33.9	9.5	0.0	2.43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7.1	32.9	44.7	15.3	0.0	2.68
	4년제 대학	202	10.4	46.5	32.2	10.4	.5	2.44
	대학원	28	7.1	53.6	25.0	14.3	0.0	2.46
전공 계열	인문	40	12.5	32.5	40.0	15.0	0.0	2.58
	사회	122	9.0	54.9	26.2	9.0	.8	2.38
	자연	40	5.0	30.0	45.0	20.0	0.0	2.80
	공학	50	12.0	40.0	36.0	12.0	0.0	2.48
	의약학	33	12.1	30.3	45.5	12.1	0.0	2.58
	교육	19	5.3	42.1	36.8	15.8	0.0	2.63
	예체능	11	0.0	63.6	36.4	0.0	0.0	2.36

〈부표 47〉 II-4. 평생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2.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체계

(단위:%)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0.2	42.9	36.5	8.9	1.6	2.49
성별	남자	218	10.1	47.2	33.9	7.3	1.4	2.43
	여자	97	10.3	33.0	42.3	12.4	2.1	2.63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0.0	2.80
	30대	18	0.0	22.2	55.6	16.7	5.6	3.06
	40대	110	10.9	40.9	39.1	8.2	.9	2.47
	50대	129	13.2	38.8	36.4	10.1	1.6	2.48
	60대 이상	53	5.7	66.0	20.8	5.7	1.9	2.32
지역	수도권	147	5.4	46.3	36.1	10.9	1.4	2.56
	비수도권	168	14.3	39.9	36.9	7.1	1.8	2.42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7.1	35.3	41.2	14.1	2.4	2.69
	4년제 대학	202	10.9	45.5	35.1	7.4	1.0	2.42
	대학원	28	14.3	46.4	32.1	3.6	3.6	2.36
전공 계열	인문	40	2.5	45.0	47.5	2.5	2.5	2.58
	사회	122	14.8	47.5	30.3	5.7	1.6	2.32
	자연	40	5.0	27.5	47.5	17.5	2.5	2.85
	공학	50	6.0	50.0	32.0	10.0	2.0	2.52
	의약학	33	9.1	36.4	42.4	12.1	0.0	2.58
	교육	19	21.1	26.3	31.6	21.1	0.0	2.53
	예체능	11	9.1	54.5	36.4	0.0	0.0	2.27

〈부표 48〉 II-4. 평생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3. 교육-일자리 연계 정보 제공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1.1	40.3	41.0	7.3	.3	2.45
성별	남자	218	11.5	42.2	39.0	6.9	.5	2.43
	여자	97	10.3	36.1	45.4	8.2	0.0	2.52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0.0	2.80
	30대	18	5.6	16.7	61.1	16.7	0.0	2.89
	40대	110	10.9	40.9	40.0	8.2	0.0	2.45
	50대	129	12.4	38.0	41.1	7.8	.8	2.47
	60대 이상	53	11.3	54.7	32.1	1.9	0.0	2.25
지역	수도권	147	8.8	38.1	44.9	7.5	.7	2.53
	비수도권	168	13.1	42.3	37.5	7.1	0.0	2.39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8.2	34.1	47.1	10.6	0.0	2.60
	4년제 대학	202	12.9	41.6	38.6	6.4	.5	2.40
	대학원	28	7.1	50.0	39.3	3.6	0.0	2.39
전공 계열	인문	40	10.0	45.0	37.5	7.5	0.0	2.43
	사회	122	17.2	40.2	34.4	7.4	.8	2.34
	자연	40	2.5	35.0	55.0	7.5	0.0	2.68
	공학	50	6.0	42.0	44.0	8.0	0.0	2.54
	의약학	33	9.1	39.4	42.4	9.1	0.0	2.52
	교육	19	10.5	36.8	47.4	5.3	0.0	2.47
	예체능	11	9.1	45.5	45.5	0.0	0.0	2.36

〈부표 49〉 II-4. 평생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4.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콘텐츠의 질과 양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2.7	41.3	37.1	8.6	.3	2.43
성별	남자	218	14.2	45.9	32.1	7.3	.5	2.34
	여자	97	9.3	30.9	48.5	11.3	0.0	2.62
연령대	20대	5	0.0	0.0	100.0	0.0	0.0	3.00
	30대	18	0.0	16.7	66.7	16.7	0.0	3.00
	40대	110	13.6	44.5	32.7	9.1	0.0	2.37
	50대	129	14.0	40.3	35.7	9.3	.8	2.43
	60대 이상	53	13.2	49.1	34.0	3.8	0.0	2.28
지역	수도권	147	9.5	42.2	38.8	8.8	.7	2.49
	비수도권	168	15.5	40.5	35.7	8.3	0.0	2.37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0.6	27.1	49.4	12.9	0.0	2.65
	4년제 대학	202	13.9	46.5	32.2	6.9	.5	2.34
	대학원	28	10.7	46.4	35.7	7.1	0.0	2.39
전공 계열	인문	40	15.0	45.0	32.5	7.5	0.0	2.33
	사회	122	13.1	46.7	31.1	8.2	.8	2.37
	자연	40	10.0	25.0	52.5	12.5	0.0	2.68
	공학	50	16.0	40.0	34.0	10.0	0.0	2.38
	의약학	33	9.1	27.3	54.5	9.1	0.0	2.64
	교육	19	15.8	47.4	31.6	5.3	0.0	2.26
	예체능	11	0.0	63.6	36.4	0.0	0.0	2.36

〈부표 50〉 II-4. 평생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5. 평생교육기관의 디지털 교육 역량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3.0	43.8	34.9	7.3	1.0	2.39
성별	남자	218	14.7	46.3	31.7	6.4	.9	2.33
	여자	97	9.3	38.1	42.3	9.3	1.0	2.55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0.0	2.80
	30대	18	0.0	22.2	61.1	11.1	5.6	3.00
	40대	110	12.7	50.0	30.0	6.4	.9	2.33
	50대	129	13.2	43.4	33.3	9.3	.8	2.41
	60대 이상	53	18.9	41.5	35.8	3.8	0.0	2.25
지역	수도권	147	10.9	44.2	35.4	8.2	1.4	2.45
	비수도권	168	14.9	43.5	34.5	6.5	.6	2.35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9.4	34.1	44.7	9.4	2.4	2.61
	4년제 대학	202	14.9	47.5	30.7	6.4	.5	2.30
	대학원	28	10.7	46.4	35.7	7.1	0.0	2.39
전공 계열	인문	40	17.5	37.5	40.0	5.0	0.0	2.33
	사회	122	17.2	45.1	29.5	6.6	1.6	2.30
	자연	40	7.5	27.5	55.0	7.5	2.5	2.70
	공학	50	8.0	52.0	30.0	10.0	0.0	2.42
	의약학	33	9.1	42.4	36.4	12.1	0.0	2.52
	교육	19	10.5	52.6	31.6	5.3	0.0	2.32
	예체능	11	9.1	63.6	27.3	0.0	0.0	2.18

〈부표 51〉 II-4. 평생교육 부문의 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 만족도-6.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 직업능력개발

(단위: %)

		사례수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5	17.1	45.4	33.7	2.9	1.0	2.25
성별	남자	218	18.8	43.6	33.5	2.8	1.4	2.24
	여자	97	13.4	49.5	34.0	3.1	0.0	2.27
연령대	20대	5	0.0	20.0	80.0	0.0	0.0	2.80
	30대	18	5.6	33.3	44.4	16.7	0.0	2.72
	40대	110	18.2	46.4	33.6	1.8	0.0	2.19
	50대	129	17.8	44.2	34.1	2.3	1.6	2.26
	60대 이상	53	18.9	52.8	24.5	1.9	1.9	2.15
지역	수도권	147	12.9	47.6	34.0	4.1	1.4	2.33
	비수도권	168	20.8	43.5	33.3	1.8	.6	2.1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1.8	48.2	35.3	4.7	0.0	2.33
	4년제 대학	202	20.8	42.6	33.7	2.5	.5	2.19
	대학원	28	7.1	57.1	28.6	0.0	7.1	2.43
전공 계열	인문	40	15.0	50.0	32.5	2.5	0.0	2.23
	사회	122	22.1	45.1	27.9	3.3	1.6	2.17
	자연	40	10.0	37.5	45.0	7.5	0.0	2.50
	공학	50	12.0	48.0	38.0	2.0	0.0	2.30
	의약학	33	12.1	51.5	36.4	0.0	0.0	2.24
	교육	19	21.1	26.3	47.4	0.0	5.3	2.42
	예체능	11	27.3	63.6	9.1	0.0	0.0	1.82

〈부표 52〉 II-4. 평생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1. 원격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6	14.3	55.2	28.6	4.09
성별	남자	218	1.8	.5	14.2	56.9	26.6	4.06
	여자	97	0.0	1.0	14.4	51.5	33.0	4.16
연령대	20대	5	0.0	0.0	20.0	80.0	0.0	3.80
	30대	18	0.0	0.0	27.8	50.0	22.2	3.94
	40대	110	2.7	.9	13.6	56.4	26.4	4.03
	50대	129	.8	.8	14.7	50.4	33.3	4.15
	60대 이상	53	0.0	0.0	9.4	64.2	26.4	4.17
지역	수도권	147	.7	0.0	18.4	55.8	25.2	4.05
	비수도권	168	1.8	1.2	10.7	54.8	31.5	4.13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0.0	21.2	50.6	28.2	4.07
	4년제 대학	202	1.5	.5	11.4	57.4	29.2	4.12
	대학원	28	3.6	3.6	14.3	53.6	25.0	3.93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5.0	47.5	35.0	4.13
	사회	122	.8	0.0	11.5	61.5	26.2	4.12
	자연	40	2.5	2.5	15.0	57.5	22.5	3.95
	공학	50	0.0	0.0	24.0	54.0	22.0	3.98
	의약학	33	3.0	0.0	9.1	45.5	42.4	4.24
	교육	19	0.0	5.3	15.8	47.4	31.6	4.05
	예체능	11	0.0	0.0	9.1	54.5	36.4	4.27

〈부표 53〉 II-4. 평생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2.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체계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2.2	14.3	51.7	30.5	4.08
성별	남자	218	1.8	1.8	14.7	55.0	26.6	4.03
	여자	97	0.0	3.1	13.4	44.3	39.2	4.20
연령대	20대	5	0.0	20.0	0.0	80.0	0.0	3.60
	30대	18	0.0	5.6	11.1	61.1	22.2	4.00
	40대	110	2.7	2.7	14.5	50.9	29.1	4.01
	50대	129	.8	1.6	17.1	43.4	37.2	4.15
	60대 이상	53	0.0	0.0	9.4	67.9	22.6	4.13
지역	수도권	147	.7	2.0	15.6	58.5	23.1	4.01
	비수도권	168	1.8	2.4	13.1	45.8	36.9	4.14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2.4	15.3	51.8	30.6	4.11
	4년제 대학	202	1.5	2.0	13.4	52.5	30.7	4.09
	대학원	28	3.6	3.6	17.9	46.4	28.6	3.93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5.0	50.0	32.5	4.10
	사회	122	.8	2.5	15.6	52.5	28.7	4.06
	자연	40	2.5	5.0	17.5	45.0	30.0	3.95
	공학	50	0.0	2.0	14.0	64.0	20.0	4.02
	의약학	33	3.0	0.0	6.1	45.5	45.5	4.30
	교육	19	0.0	5.3	15.8	36.8	42.1	4.16
	예체능	11	0.0	0.0	9.1	63.6	27.3	4.18

〈부표 54〉 II-4. 평생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3. 교육-일자리 연계 정보 제공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1.3	15.6	52.1	29.8	4.08
성별	남자	218	1.8	1.4	17.0	53.7	26.1	4.01
	여자	97	0.0	1.0	12.4	48.5	38.1	4.24
연령대	20대	5	0.0	0.0	20.0	80.0	0.0	3.80
	30대	18	0.0	5.6	22.2	50.0	22.2	3.89
	40대	110	2.7	2.7	14.5	50.9	29.1	4.01
	50대	129	.8	0.0	17.8	48.1	33.3	4.13
	60대 이상	53	0.0	0.0	9.4	62.3	28.3	4.19
지역	수도권	147	.7	.7	21.1	52.4	25.2	4.01
	비수도권	168	1.8	1.8	10.7	51.8	33.9	4.14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1.2	12.9	55.3	30.6	4.15
	4년제 대학	202	1.5	1.0	17.3	50.0	30.2	4.06
	대학원	28	3.6	3.6	10.7	57.1	25.0	3.96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2.5	40.0	45.0	4.25
	사회	122	.8	2.5	16.4	53.3	27.0	4.03
	자연	40	2.5	2.5	17.5	57.5	20.0	3.90
	공학	50	0.0	0.0	22.0	60.0	18.0	3.96
	의약학	33	3.0	0.0	3.0	45.5	48.5	4.36
	교육	19	0.0	0.0	15.8	63.2	21.1	4.05
	예체능	11	0.0	0.0	18.2	27.3	54.5	4.36

〈부표 55〉 II-4. 평생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4.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콘텐츠의 질과 양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3	13.0	54.9	30.5	4.13
성별	남자	218	1.8	0.0	12.8	58.3	27.1	4.09
	여자	97	0.0	1.0	13.4	47.4	38.1	4.23
연령대	20대	5	0.0	0.0	20.0	80.0	0.0	3.80
	30대	18	0.0	0.0	33.3	44.4	22.2	3.89
	40대	110	2.7	.9	10.9	58.2	27.3	4.06
	50대	129	.8	0.0	15.5	47.3	36.4	4.19
	60대 이상	53	0.0	0.0	3.8	67.9	28.3	4.25
지역	수도권	147	.7	0.0	16.3	53.1	29.9	4.12
	비수도권	168	1.8	.6	10.1	56.5	31.0	4.14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0.0	17.6	50.6	31.8	4.14
	4년제 대학	202	1.5	0.0	9.4	58.9	30.2	4.16
	대학원	28	3.6	3.6	25.0	39.3	28.6	3.86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5.0	42.5	40.0	4.18
	사회	122	.8	0.0	13.9	57.4	27.9	4.11
	자연	40	2.5	2.5	12.5	60.0	22.5	3.98
	공학	50	0.0	0.0	12.0	62.0	26.0	4.14
	의약학	33	3.0	0.0	6.1	48.5	42.4	4.27
	교육	19	0.0	0.0	15.8	52.6	31.6	4.16
	예체능	11	0.0	0.0	18.2	45.5	36.4	4.18

〈부표 56〉 II-4. 평생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5. 평생교육기관의 디지털 교육 역량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3	1.3	11.4	52.4	33.7	4.16
성별	남자	218	1.8	.5	11.0	54.1	32.6	4.15
	여자	97	0.0	3.1	12.4	48.5	36.1	4.18
연령대	20대	5	0.0	20.0	0.0	80.0	0.0	3.60
	30대	18	0.0	0.0	22.2	50.0	27.8	4.06
	40대	110	2.7	1.8	10.9	52.7	31.8	4.09
	50대	129	.8	.8	13.2	48.8	36.4	4.19
	60대 이상	53	0.0	0.0	5.7	58.5	35.8	4.30
지역	수도권	147	.7	.7	14.3	53.1	31.3	4.14
	비수도권	168	1.8	1.8	8.9	51.8	35.7	4.1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2.4	17.6	51.8	28.2	4.06
	4년제 대학	202	1.5	.5	7.9	54.0	36.1	4.23
	대학원	28	3.6	3.6	17.9	42.9	32.1	3.96
전공 계열	인문	40	2.5	0.0	10.0	45.0	42.5	4.25
	사회	122	.8	0.0	10.7	54.1	34.4	4.21
	자연	40	2.5	5.0	10.0	67.5	15.0	3.88
	공학	50	0.0	0.0	16.0	64.0	20.0	4.04
	의약학	33	3.0	3.0	6.1	42.4	45.5	4.24
	교육	19	0.0	5.3	15.8	31.6	47.4	4.21
	예체능	11	0.0	0.0	18.2	18.2	63.6	4.45

〈부표 57〉 II-4. 평생교육 부문의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필요성-6.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 직업능력개발

(단위: %)

		사례수	①전혀 불필요	②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평균
전체		315	1.0	2.2	14.0	47.3	35.6	4.14
성별	남자	218	1.4	2.8	14.2	48.6	33.0	4.09
	여자	97	0.0	1.0	13.4	44.3	41.2	4.26
연령대	20대	5	0.0	0.0	20.0	80.0	0.0	3.80
	30대	18	0.0	16.7	0.0	66.7	16.7	3.83
	40대	110	1.8	1.8	14.5	47.3	34.5	4.11
	50대	129	.8	.8	17.8	38.8	41.9	4.20
	60대 이상	53	0.0	1.9	7.5	58.5	32.1	4.21
지역	수도권	147	.7	3.4	15.6	47.6	32.7	4.08
	비수도권	168	1.2	1.2	12.5	47.0	38.1	4.20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1.2	17.6	48.2	32.9	4.13
	4년제 대학	202	1.0	2.0	13.4	46.5	37.1	4.17
	대학원	28	3.6	7.1	7.1	50.0	32.1	4.00
전공 계열	인문	40	2.5	5.0	7.5	50.0	35.0	4.10
	사회	122	.8	1.6	13.9	45.1	38.5	4.19
	자연	40	2.5	2.5	17.5	57.5	20.0	3.90
	공학	50	0.0	2.0	18.0	60.0	20.0	3.98
	의약학	33	0.0	0.0	12.1	36.4	51.5	4.39
	교육	19	0.0	5.3	21.1	26.3	47.4	4.16
	예체능	11	0.0	0.0	0.0	36.4	63.6	4.64

〈부표 58〉 III.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 -1. 에듀테크 산업의 학교교육 활용

(단위: %)

		사례수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평균
전체		315	2.9	5.4	20.0	53.0	18.7	3.79
성별	남자	218	3.2	6.9	20.2	53.7	16.1	3.72
	여자	97	2.1	2.1	19.6	51.5	24.7	3.95
연령대	20대	5	0.0	0.0	20.0	40.0	40.0	4.20
	30대	18	0.0	11.1	16.7	66.7	5.6	3.67
	40대	110	4.5	7.3	13.6	50.0	24.5	3.83
	50대	129	3.1	4.7	24.0	51.2	17.1	3.74
	60대 이상	53	0.0	1.9	24.5	60.4	13.2	3.85
지역	수도권	147	1.4	6.8	19.0	59.2	13.6	3.77
	비수도권	168	4.2	4.2	20.8	47.6	23.2	3.82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2	5.9	14.1	54.1	24.7	3.95
	4년제 대학	202	4.0	5.0	22.3	53.0	15.8	3.72
	대학원	28	0.0	7.1	21.4	50.0	21.4	3.86
전공 계열	인문	40	2.5	7.5	17.5	57.5	15.0	3.75
	사회	122	2.5	8.2	23.0	53.3	13.1	3.66
	자연	40	2.5	0.0	15.0	57.5	25.0	4.03
	공학	50	2.0	4.0	20.0	58.0	16.0	3.82
	의약학	33	6.1	0.0	12.1	45.5	36.4	4.06
	교육	19	0.0	10.5	36.8	31.6	21.1	3.63
	예체능	11	9.1	0.0	9.1	54.5	27.3	3.91

〈부표 59〉 III.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 -2. 블렌디드 러닝 등 교수학습 방식 개선

(단위: %)

		사례수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평균
전체		315	1.6	3.2	16.5	52.7	26.0	3.98
성별	남자	218	1.8	3.2	17.4	54.6	22.9	3.94
	여자	97	1.0	3.1	14.4	48.5	33.0	4.09
연령대	20대	5	0.0	20.0	20.0	60.0	0.0	3.40
	30대	18	0.0	0.0	22.2	55.6	22.2	4.00
	40대	110	.9	.9	13.6	51.8	32.7	4.15
	50대	129	2.3	3.9	21.7	45.0	27.1	3.91
	60대 이상	53	1.9	5.7	7.5	71.7	13.2	3.89
지역	수도권	147	.7	3.4	18.4	55.1	22.4	3.95
	비수도권	168	2.4	3.0	14.9	50.6	29.2	4.01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4.7	10.6	55.3	29.4	4.09
	4년제 대학	202	2.5	3.0	19.3	52.5	22.8	3.90
	대학원	28	0.0	0.0	14.3	46.4	39.3	4.25
전공 계열	인문	40	0.0	0.0	10.0	72.5	17.5	4.08
	사회	122	1.6	3.3	23.8	52.5	18.9	3.84
	자연	40	2.5	5.0	2.5	57.5	32.5	4.13
	공학	50	2.0	2.0	20.0	52.0	24.0	3.94
	의약학	33	3.0	3.0	9.1	36.4	48.5	4.24
	교육	19	0.0	5.3	21.1	36.8	36.8	4.05
	예체능	11	0.0	9.1	9.1	45.5	36.4	4.09

〈부표 60〉 III.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 -3.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시행

(단위: %)

		사례수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평균
전체		315	4.8	13.7	29.8	30.5	21.3	3.50
성별	남자	218	5.5	14.2	27.5	30.7	22.0	3.50
	여자	97	3.1	12.4	35.1	29.9	19.6	3.51
연령대	20대	5	0.0	0.0	20.0	80.0	0.0	3.80
	30대	18	0.0	0.0	61.1	22.2	16.7	3.56
	40대	110	2.7	13.6	30.0	30.0	23.6	3.58
	50대	129	7.0	15.5	26.4	32.6	18.6	3.40
	60대 이상	53	5.7	15.1	28.3	24.5	26.4	3.51
지역	수도권	147	4.8	15.6	32.7	31.3	15.6	3.37
	비수도권	168	4.8	11.9	27.4	29.8	26.2	3.61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14.1	36.5	31.8	17.6	3.53
	4년제 대학	202	6.9	14.4	27.2	29.2	22.3	3.46
	대학원	28	3.6	7.1	28.6	35.7	25.0	3.71
전공 계열	인문	40	2.5	10.0	30.0	42.5	15.0	3.58
	사회	122	7.4	16.4	23.8	25.4	27.0	3.48
	자연	40	5.0	10.0	32.5	32.5	20.0	3.53
	공학	50	0.0	10.0	36.0	36.0	18.0	3.62
	의약학	33	3.0	9.1	36.4	24.2	27.3	3.64
	교육	19	10.5	31.6	21.1	26.3	10.5	2.95
	예체능	11	0.0	9.1	54.5	36.4	0.0	3.27

〈부표 61〉 III.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 -4. 대학생 지식생산 및 교육참여 강화

(단위: %)

		사례수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평균
전체		315	1.0	4.8	15.2	47.3	31.7	4.04
성별	남자	218	.9	6.0	15.1	47.7	30.3	4.00
	여자	97	1.0	2.1	15.5	46.4	35.1	4.12
연령대	20대	5	0.0	0.0	20.0	60.0	20.0	4.00
	30대	18	0.0	11.1	27.8	38.9	22.2	3.72
	40대	110	0.0	4.5	15.5	48.2	31.8	4.07
	50대	129	2.3	3.9	14.0	51.2	28.7	4.00
	60대 이상	53	0.0	5.7	13.2	37.7	43.4	4.19
지역	수도권	147	1.4	6.8	14.3	55.8	21.8	3.90
	비수도권	168	.6	3.0	16.1	39.9	40.5	4.17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4.7	16.5	50.6	28.2	4.02
	4년제 대학	202	1.5	5.4	16.3	45.0	31.7	4.00
	대학원	28	0.0	0.0	3.6	53.6	42.9	4.39
전공 계열	인문	40	0.0	0.0	12.5	50.0	37.5	4.25
	사회	122	1.6	8.2	13.9	45.1	31.1	3.96
	자연	40	2.5	2.5	15.0	42.5	37.5	4.10
	공학	50	0.0	2.0	24.0	54.0	20.0	3.92
	의약학	33	0.0	3.0	15.2	39.4	42.4	4.21
	교육	19	0.0	5.3	5.3	57.9	31.6	4.16
	예체능	11	0.0	9.1	18.2	54.5	18.2	3.82

〈부표 62〉 III.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 -5.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 유인체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평균
전체		315	.6	1.6	15.2	57.8	24.8	4.04
성별	남자	218	.5	1.8	14.7	58.3	24.8	4.05
	여자	97	1.0	1.0	16.5	56.7	24.7	4.03
연령대	20대	5	0.0	0.0	20.0	80.0	0.0	3.80
	30대	18	0.0	11.1	22.2	33.3	33.3	3.89
	40대	110	0.0	.9	16.4	55.5	27.3	4.09
	50대	129	1.6	1.6	15.5	62.8	18.6	3.95
	60대 이상	53	0.0	0.0	9.4	56.6	34.0	4.25
지역	수도권	147	.7	1.4	17.0	57.1	23.8	4.02
	비수도권	168	.6	1.8	13.7	58.3	25.6	4.07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2.4	12.9	60.0	24.7	4.07
	4년제 대학	202	1.0	1.5	16.8	56.9	23.8	4.01
	대학원	28	0.0	0.0	10.7	57.1	32.1	4.21
전공 계열	인문	40	0.0	0.0	7.5	62.5	30.0	4.23
	사회	122	.8	1.6	18.9	55.7	23.0	3.98
	자연	40	2.5	0.0	12.5	65.0	20.0	4.00
	공학	50	0.0	4.0	14.0	56.0	26.0	4.04
	의약학	33	0.0	3.0	12.1	48.5	36.4	4.18
	교육	19	0.0	0.0	26.3	63.2	10.5	3.84
	예체능	11	0.0	0.0	9.1	63.6	27.3	4.18

〈부표 63〉 III.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 -6. 중소기업의 디지털 숙련 지원

(단위: %)

		사례수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평균
전체		315	1.3	3.5	12.4	54.0	28.9	4.06
성별	남자	218	1.4	4.6	12.8	56.4	24.8	3.99
	여자	97	1.0	1.0	11.3	48.5	38.1	4.22
연령대	20대	5	0.0	20.0	0.0	40.0	40.0	4.00
	30대	18	0.0	5.6	16.7	55.6	22.2	3.94
	40대	110	.9	4.5	11.8	46.4	36.4	4.13
	50대	129	2.3	3.1	14.7	58.9	20.9	3.93
	60대 이상	53	0.0	0.0	7.5	58.5	34.0	4.26
지역	수도권	147	1.4	2.7	15.6	52.4	27.9	4.03
	비수도권	168	1.2	4.2	9.5	55.4	29.8	4.08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3.5	12.9	49.4	34.1	4.14
	4년제 대학	202	2.0	4.0	10.9	57.4	25.7	4.01
	대학원	28	0.0	0.0	21.4	42.9	35.7	4.14
전공 계열	인문	40	0.0	0.0	5.0	67.5	27.5	4.23
	사회	122	.8	4.1	14.8	53.3	27.0	4.02
	자연	40	2.5	5.0	12.5	45.0	35.0	4.05
	공학	50	2.0	2.0	18.0	58.0	20.0	3.92
	의약학	33	3.0	3.0	9.1	36.4	48.5	4.24
	교육	19	0.0	10.5	10.5	57.9	21.1	3.89
	예체능	11	0.0	0.0	0.0	72.7	27.3	4.27

〈부표 64〉 III.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 -7.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거점화

(단위: %)

		사례수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평균
전체		315	1.9	4.1	18.1	41.9	34.0	4.02
성별	남자	218	2.8	4.1	18.3	41.7	33.0	3.98
	여자	97	0.0	4.1	17.5	42.3	36.1	4.10
연령대	20대	5	0.0	0.0	60.0	40.0	0.0	3.40
	30대	18	0.0	11.1	33.3	33.3	22.2	3.67
	40대	110	1.8	3.6	18.2	30.9	45.5	4.15
	50대	129	3.1	5.4	13.2	52.7	25.6	3.92
	60대 이상	53	0.0	0.0	20.8	41.5	37.7	4.17
지역	수도권	147	1.4	7.5	23.8	46.9	20.4	3.78
	비수도권	168	2.4	1.2	13.1	37.5	45.8	4.23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1.2	5.9	22.4	41.2	29.4	3.92
	4년제 대학	202	2.5	3.5	16.3	42.1	35.6	4.05
	대학원	28	0.0	3.6	17.9	42.9	35.7	4.11
전공 계열	인문	40	2.5	2.5	10.0	52.5	32.5	4.10
	사회	122	2.5	4.9	15.6	41.8	35.2	4.02
	자연	40	2.5	0.0	32.5	35.0	30.0	3.90
	공학	50	0.0	4.0	24.0	50.0	22.0	3.90
	의약학	33	3.0	3.0	21.2	27.3	45.5	4.09
	교육	19	0.0	15.8	5.3	36.8	42.1	4.05
	예체능	11	0.0	0.0	9.1	45.5	45.5	4.36

〈부표 65〉 III.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 -8. 평생교육 이력 및 바우처 지원 강화

(단위: %)

		사례수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평균
전체		315	1.0	5.4	20.3	48.3	25.1	3.91
성별	남자	218	1.4	6.4	20.2	49.5	22.5	3.85
	여자	97	0.0	3.1	20.6	45.4	30.9	4.04
연령대	20대	5	0.0	0.0	40.0	60.0	0.0	3.60
	30대	18	0.0	11.1	38.9	33.3	16.7	3.56
	40대	110	.9	5.5	18.2	47.3	28.2	3.96
	50대	129	1.6	5.4	22.5	49.6	20.9	3.83
	60대 이상	53	0.0	3.8	11.3	50.9	34.0	4.15
지역	수도권	147	.7	8.2	25.2	48.3	17.7	3.74
	비수도권	168	1.2	3.0	16.1	48.2	31.5	4.06
소속 대학 구분	전문대학	85	0.0	4.7	20.0	49.4	25.9	3.96
	4년제 대학	202	1.5	5.4	20.3	48.0	24.8	3.89
	대학원	28	0.0	7.1	21.4	46.4	25.0	3.89
전공 계열	인문	40	0.0	2.5	10.0	57.5	30.0	4.15
	사회	122	0.0	6.6	19.7	49.2	24.6	3.92
	자연	40	2.5	0.0	27.5	40.0	30.0	3.95
	공학	50	0.0	8.0	30.0	50.0	12.0	3.66
	의약학	33	6.1	3.0	18.2	33.3	39.4	3.97
	교육	19	0.0	15.8	21.1	52.6	10.5	3.58
	예체능	11	0.0	0.0	0.0	63.6	36.4	4.36

□ 저자 약력

• 김승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한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공존 시기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행연월일	2021년 12월 28일 인쇄 2021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류 장 수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I S B N	979-11-339-9675-9 93320
·인 쇄 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값 4,000원〉

www.krivet.re.kr

값 4,000원
93320
9 791133 996759
ISBN 979-11-339-9675-9